

HUFES



HUFES WHO WILL LEAD THE DIPLOMACY OF KOREA IN THE FUTURE

Cover Story

2023학년도 한국외대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Special Theme

혁신과 노력의 값진 결과,
2024학년도 수시 모집

Inside HUFES

외국어와 글로벌 인프라로 무장한
HUFES 메타버스 캠퍼스

HUFES Topic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국내 대학 순위 2위



한국외대, 첨단지식을 HUFS하다

글로벌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대학, 한국외대 2024학년도 신설학부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100개국 617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력

캠퍼스 구분 없는
이중전공 &
7+1 해외파견

특수외국어
16개 포함
45개 외국어 교육

다양한 현장
글로벌 인턴십과
취업 지원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HUFS 2023 WINTER Vol. 121

혁신과 노력의 값진 결과, 2024학년도 수시 모집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제2023학년도 한국외대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 04 **Special Theme** 혁신과 노력의 값진 결과, 2024학년도 수시 모집
- 06 **Theme Interview** 학생을 위한 노력이 만든 HUFS의 경쟁력 정석오 입학처장
- 12 **HUFS Interview** 한국외대의 힘 윤상기 국제무역인클럽 회장·스페인어 73
한 분야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것 - '반도체의 날' 국무총리 표창 조경순 전자공학과 교수
함께 경험하고 성장한 시간 -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수상
쿠세아(KUSEA) '아기돼지 사형제' 팀
- 18 **Inside HUFS** 외국어와 글로벌 인프라로 무장한 HUFS 메타버스 캠퍼스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 20 **Global Memoirs** UC Berkeley에서의 배움, 그리고 인생 - '7+1 파견 프로그램' 후기 정혜림 ELLT 20
- 22 **I am HUFSan** 새롭게 단장한 HUFS 학생 홍보대사 HUFS HANA
- 26 **Global Issues** 가자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김수완 융합인재학부 중동이슬람전략 모듈 교수

HUFS NEWS

- 30 **HUFS Topics**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국내 대학 순위 2위
李白 장학금 수여식 및 백창호 강의실 헌정식 개최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및 발전기금 전달
한-태국 수교 65주년 기념 학술문화제 개최 및 발전기금 기탁
- 34 **HUFS Today**
- 38 **HUFS Academies**
- 42 **HUFS Professors**
- 44 **HUFS Institutes**
- 46 **HUFS Books**

DONATION & ALUMNI

- 50 **Donation & Alumni**
- 54 **Donation list**

2023학년도 한국외대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학교와 선배님들 도움과 응원에 힘을 낸 덕분에
내 능력보다 과분하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
더 열심히 준비해 열정을 가진 외교관이 되겠다.”

김정원 국제 12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외대와 외대 교수님들, 선배들,
그리고 고시반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외대, 그리고 LD학부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빛내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외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영서 LD 18

“자랑스러운 외대인으로서
외교부 일원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선배들, 함께 합격한
소중한 동기들, 앞으로 만나게 될 후배들과 함께
외대를 한층 더 빛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박슬기 독일어 13

한국외대는 지난 10월 23일(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3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총 7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는 총 1,292명이 응시해 45명이 최종 합격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김정원(국제 12), 박슬기(독일어 13), 김경훈(이탈리아어 13),
백미란(정치외교 16), 백다운(EICC 16), 고유진(LD 17), 지영서(LD 18) 학생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 합격했다는 사실이
아직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입부 후에도 노력해서
훌륭한 외교관이 되도록 하겠다.”

김경훈 이탈리아어 13

“공부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이
들 때마다 국익에 기여하는 외교관의 모습을 떠올렸다.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고민하는 외교관이 되겠다.”

고유진 LD 17

“외대에 와서 세계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외교부의 심장이 되겠다.”

백다운 EICC 16

“온 힘으로 지지해준 부모님, 언니,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큰 것 같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백미란 정치외교 16

우리 대학은 11월 14일(화)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박정운 총장과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 오종진 대외협력처장이 환담에 함께했다.
박정운 총장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지도하고
배출해준 데 대해 외무고시반 유현주 지도교수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관 배출은 외대의 전통이자 훌륭한 유산이다. 현재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윤덕민 주일한국대사, 이상덕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 등 우리 동문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이번 합격생들이 긍지를 갖고 잘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 입부 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외대생으로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 외대 동문회(회장 김상훈(말레이·인도네시아어 91),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가
합격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외교부 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합격생들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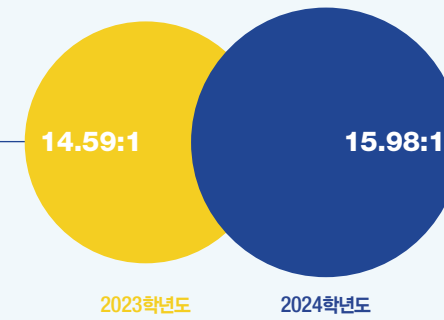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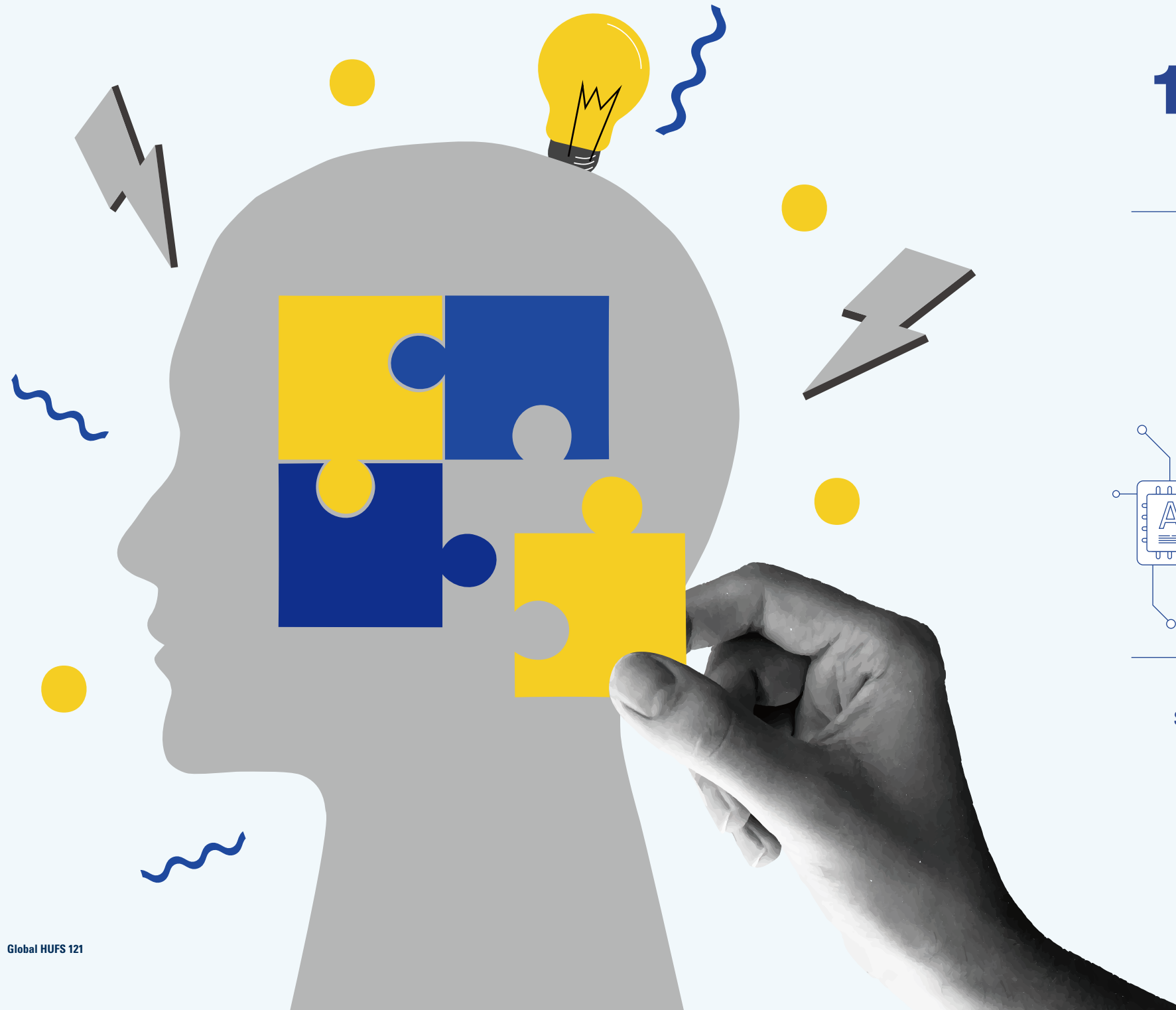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꾸준히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2019년 6명, 2020년 8명, 2022년 3명 등 명실상부 글로벌 대학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조현동(스페인어 78) 주미한국대사, 윤덕민(정치외교 79) 주일한국대사, 이상덕(포르투갈어 79)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 김완중(영어 82) 주호주한국대사, 박준용(영어 82) 주사우디한국대사 등
우리 대학 동문 공관장들이 국제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관을 꿈꾸는 우리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될 합격자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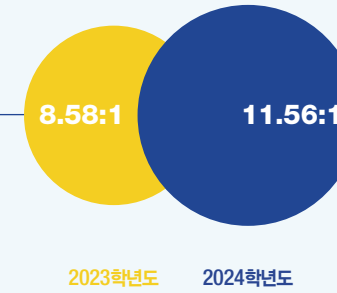
혁신과 노력의 값진 결과, 2024학년도 수시 모집



15.98:1

2024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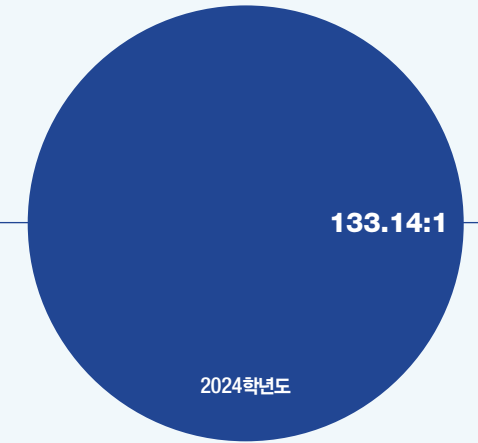
서울·글로벌 캠퍼스
2,093명 모집
33,443명 지원



11.56:1

글로벌캠퍼스
수시 모집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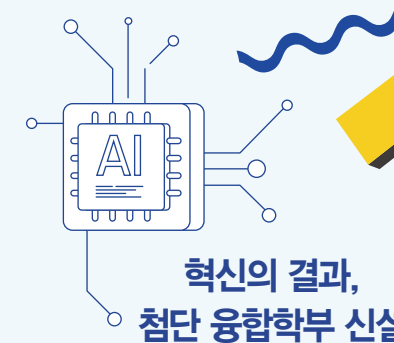
신설 첨단 분야 융합학부
높은 경쟁률 기록



133.14:1

Language & AI융합학부
최고 경쟁률 기록

논술전형 38.16:1
학생부종합전형(면접) 13.00:1
학생부종합전형(서류) 8.37:1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7.7:1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교사 대상 'Hufs 교사컨퍼런스'
'Hufs 1:1 맞춤 컨설팅'
전국 400여 개교에서 '고교방문설명회'
4개 권역 '지원전략 설명회'
다양한 규모의 30개 박람회 참여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2년 연속 선정
인공지능(AI)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SW중심대학 운영
언어공학, 머신러닝/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교육과정과 기초/심화 프로젝트,
기업 멘토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과정



한국외대는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15.98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시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기존 학제를 과감히 개편해 첨단 분야 및
문화 산업 분야 학부를 설립한 것도 큰 몫을 했다.
정석오 입학처장이 새로운 외대,
이를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전한다.

학생을 위한 노력이 만든 HUFS의 경쟁력

정석오 입학처장

서울·글로벌 캠퍼스 높은 경쟁률 기록

우리 대학은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2,093명 모집에 3만3,443명이 지원해 15.9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글로벌 양 캠퍼스를 합산한 수치로, 지난해 대비 모집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다. 특히 수시 모집 중 Language & AI융합학부의 논술 전형이 133.14: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정석오 입학처장은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외대의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한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 응시한 올해 고3 수험생 숫자가 지난해 대비 약 3만명 적은 40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소 염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캠퍼스의

경쟁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전형에 따라 오히려 약간 높아졌습니다. 서울캠퍼스에 처음 생긴 자연계열 학부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캠퍼스에 신설된 첨단 분야의 융합학부들 역시 훨씬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정석오 입학처장은 특히 글로벌캠퍼스의 약진이 고무적이었다고 말한다.

“예년의 글로벌캠퍼스 수시 경쟁률은 8~9: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시 경쟁률은 11.56:1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학 내 신설된 다양한 첨단학부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대의 노력으로 만든 유의미한 결과

정석오 입학처장은 입시를 위한 크고 작은 수많은 노력이 이번 수시 모집에서 값진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 대상 ‘HUFS 교사컨퍼런스’ ‘HUFS 1:1 맞춤 컨설팅’을 개최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400여 개교에서 ‘고교방문설명회’를 진행하고, 4개 권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지원전략 설명회’,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26개 박람회에 참여했다.

“연인원 1만4,000여 명을 대면으로 만나 우리 대학을 소개하고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행사에는 입학처장인 제가 다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첨단융합 학문을 중심으로 한 학제 개편이 단순히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 변화와 노력이 우리 대학의 고유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더불어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한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 전략의 구현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 외대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 자체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석오 입학처장은 입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모두 입학처 사정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내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우리 대학 입시 홍보에 힘써 준 입학처 내 모든 사정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우리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외대 시대를 이끌어갈 첫 주자라는 기대감

정석오 입학처장은 2024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홍보에서 새로운 학부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변화의 첫 주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제대로 배우길 바라는 희망과 신설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전한다.

“서울캠퍼스에는 그동안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연계열 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첨단융합학부 모두 나름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학생들이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신설 학부들은 수시 전형에서 실제로 최고 경쟁률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정시 전형은 진행 전이지만, 아마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대학은 12월부터 전국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3년 HUFS 대입톡'을 진행한다. 정석오 입학처장은 물리적 제약 없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년도 입시 결과 및 경쟁률, 지원 가능 점수 등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입학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대학이 변해야 산다

최근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시대로 변해가는 세상에 맞춰 첨단화의 길로 발을 내딛고 있다. 오랜 강점으로 여겨온 인문학 중심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융합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더해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정석오 입학처장은 이런 변화가 외대의 미래와 관련 있다고 설명한다.

“외대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어문학, 지역학에 기반해 첨단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정은 총장님이 일관되게 말씀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외국학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첨단과 융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하나씩 바뀌나갔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첨단융합학부입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첨단융합학부라는 이름의 신설학과를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만들었다. 서울캠퍼스는 어문·사회과학 중심의 다국어 데이터 기반 외국학 융합, 글로벌캠퍼스는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Bio Technology), 문화기술(CT·Culture Technology) 기반 실용 학문 융합으로 특화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에 새롭게 선보일 8개 신설학과는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다.

“아무래도 외대가 인문계 중심 대학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주변에서 신설 첨단융합학부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강점을 활용해 각 첨단 분야를 특성화하고자 하는 발전 방향성을 강조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대학도 가질 수 없는 차별화된 교육과 연구 콘텐츠를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인 언어로 승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AI라는 첨단 공학 분야를 말하면 과학에 특성화된 대학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외대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언어’라는 강점을 AI에 더해 승부수를 띄웠다.

“AI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이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은 ChatGPT와 같은 첨단 기술을 살펴보면 결국 언어 기반으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45개 언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45개 언어로 되어 있는 교재를 지니고 있는 셈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학은 그 어떤 대학도 가지지 못한 자산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석오 입학처장은 학생들이 기존의 외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바꿔 대학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강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한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건 결국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외대 입학생들이 외대를 스스로 선택해서 입학한 만큼

외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전정신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흥내낼 수 없는 시장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대학과 다르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학생을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다른 어떤 대학도 가질 수 없는 차별화된 교육과 연구 콘텐츠로 세계적 선도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면 놀라움과 함께 공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공감하며 함께 만들어내는 변화

정석오 입학처장은 입학 후 외대 구성원이 될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건 결국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외대 입학생들이 외대를 스스로 선택해서 입학한 만큼 외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전정신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오 입학처장은 2024년도 입학 과정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우리 대학 입학처는 그동안 쌓아온 공정과 신뢰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키워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고유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학생을 발견하고, 학생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입시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처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H

U



HUFS INTERVIEW

한국외대의 힘

윤상기 국제무역인클럽(International Trade Club) 회장·스페인어 73

한 분야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것

조경순 전자공학과 교수

함께 경험하고 성장한 시간

쿠세아(KUSEA) '아기돼지 사형제' 팀

팀장 김민서 노어 18

김지은 융합일본지역 20

박세은 경제 18

현의찬 경제 20



F

S

한국외대의 힘



국제무역인클럽(International Trade Club) 회장
윤상기 스페인어 73

한국외대 국제무역인클럽(International Trade Club, ITC)이 올해로 26주년을 맞았다.

ITC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끈끈한 유대를 이어가고 있다.

ITC 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윤상기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ITC는 한국외대를 대표하는 동문회 중 하나입니다. ITC를 소개해주세요.**

수출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ITC는 1997년 12월 9일 발족되었습니다. 외대인이 무역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모임의 필요성을 느껴 김필규 선배님을 주축으로 고찬식, 한기봉, 이성희, 서도원, 허영, 문병욱, 권순한 동문이 모여 설립했습니다. 김필규 동문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34명으로 시작해 최대 260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동문회가 됐습니다. 현재 기업 CEO, 금융계, 법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기 전공은 다르지만, ITC라는 울타리 안에서 26년간 서로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ITC의 활동 중 특별히 널리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ITC 내 4개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산악회, 골프회, 조찬, 저녁 모임입니다. 각 소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회원들의 친목이 돈독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친목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협조할 때도 있습니다.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때 배에 물건을 선적하는데, 운송업체에도 외대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수출 분야에 한국무역협회가 있듯이 수입 분야에는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있는데, 협회 회장직에 외대 출신이 여러 번 선출돼 ITC도 이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ITC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ITC의 창립 목적 자체는 졸업한 동문의 상호 교류였습니다. ITC의 활동 자체는 원활히 잘 이뤄졌지만, 그동안 학교를 위한 활동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HUFS ITC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장학 관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재학생 5명을 선출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명이 받는 장학금 1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ITC 내 4개의 소모임이 모임 때 단순히 친목 도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악회는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해설사와 함께 서원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 문화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찬 모임은 외대 동문 출신의 전 베트남 대사, 러시아 대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제적인

정세나 지역 사정을 익히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배움의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 **ITC 회원들에게 외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동문회’ 하면 자신이 졸업한 과의 선후배들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ITC는 서로 전공과 하는 일이 다르지만, 외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후배 사이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를 불문하고 선후배, 다른 과 선후배까지 모두 알게 되는 것입니다. ITC를 통해 사회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요. 이런 점이 ITC가 지닌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외대 성장 및 발전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외대는 외국어 중심의 특수 목적 대학으로 시작해 현재 종합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시기에 국가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산업화, 국제화가 된 지금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 외국어과 학생은 관련 외국어를 숙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고, 그 나라의 지역 사정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공계나 자연과학 계열 학부생은 전공 외 인문학 서적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읽기를 권합니다. 어문계열 학생들도 이공계 이 중전공이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전문 분야,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는 톨이고, 아이디어는 무기입니다. 외대를 활용해 자신만의 무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 **ITC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한 ITC 활성화를 위해 신규 회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어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문과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외대 동문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ITC 사무차장이 중남미 5개국에서 외대 동문을 만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서 무역하는 외대 동문을 만나 활동 범주를 넓히고자 합니다.

신규 회원 가입 문의 : 김승영 ITC 사무총장(robert_kim@ybtex.com/02-2237-5181)

한 분야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것

‘반도체의 날’ 국무총리 표창

조경순 전자공학과 교수

- **지난 10월 26일 ‘제16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제1회 반도체의 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15년이 지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외대가 어학으로 특성화돼 있는 대학인데, ‘반도체’라는 조금은 특수한 분야로 상을 받았다는 게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 전자공학과의 확대 개편해 반도체 전자공학부로 출범하는데, 이를 많이 알려야 되는 시점에 수상하게 돼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수상 후보자 명단에 오르면 심사단은 후보자가 반도체 산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양한 방면으로 검증합니다. 기술 개발과 같은 산업적 측면의 활동이 중요한데, 저는 외대 교수 생활을 하면서 ECT, 코아시아, 동부하이텍, 코아로직, 다윈텍, 엔타시스, 라디오펄스 등 다수의 반도체 회사 연구소장, 기술고문, 사외이사, 감사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한국외대에 1994년 부임해 30여 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고, 그 사이 공과대학 학장, 산학연계 부총장 등도 맡아 학생들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기업에서 직원 교육을 10년 이상 했고, 교내의 인력 양성에 힘쓴 측면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대규모 정책 사업이 많습니다. 저는 2005~2011년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 사업단 SoC설계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 위원과 ICT원천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소사이터 연구 담당 부회장과 국제 학술대회 ISOCC의 대회장, 2018년 제1회 반도체산학연교류워크샵 대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정책 사업단 및 학술 활동을 통한 관产学研 R&D 기반을 구축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반도체 분야 중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반도체 분야는 크게 설계와 제조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설계와 제조를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는가 하면, 설계만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곳은 제조만 합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는 대만의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이지만,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에 밀려서 2위입니다. 이 격차를 따라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계 분야에서는 주로 미국,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가 설계든 제조든 상당히 뛰어나고 업계 1위이지만, 늘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설계 및 제조도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젠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가 주전공이어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 교육하는 일과 더불어 연구하는 일,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일 세 가지가 교수의 본분이라고 생각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 왔습니다. 더불어 감을 잃지 않으려 산업체, 국책 연구소와 계속 관계를 갖고 일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30년간 분주하게 지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분야에 대해 정말 잘 알아야 하고, 잘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자주 바꾸면 그렇게 되기 힘들니다. 학생들에게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깊이 있는 엔지니어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내 기업 여건상 그렇게 되기 힘들었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회사들의 수준이 높아져 학생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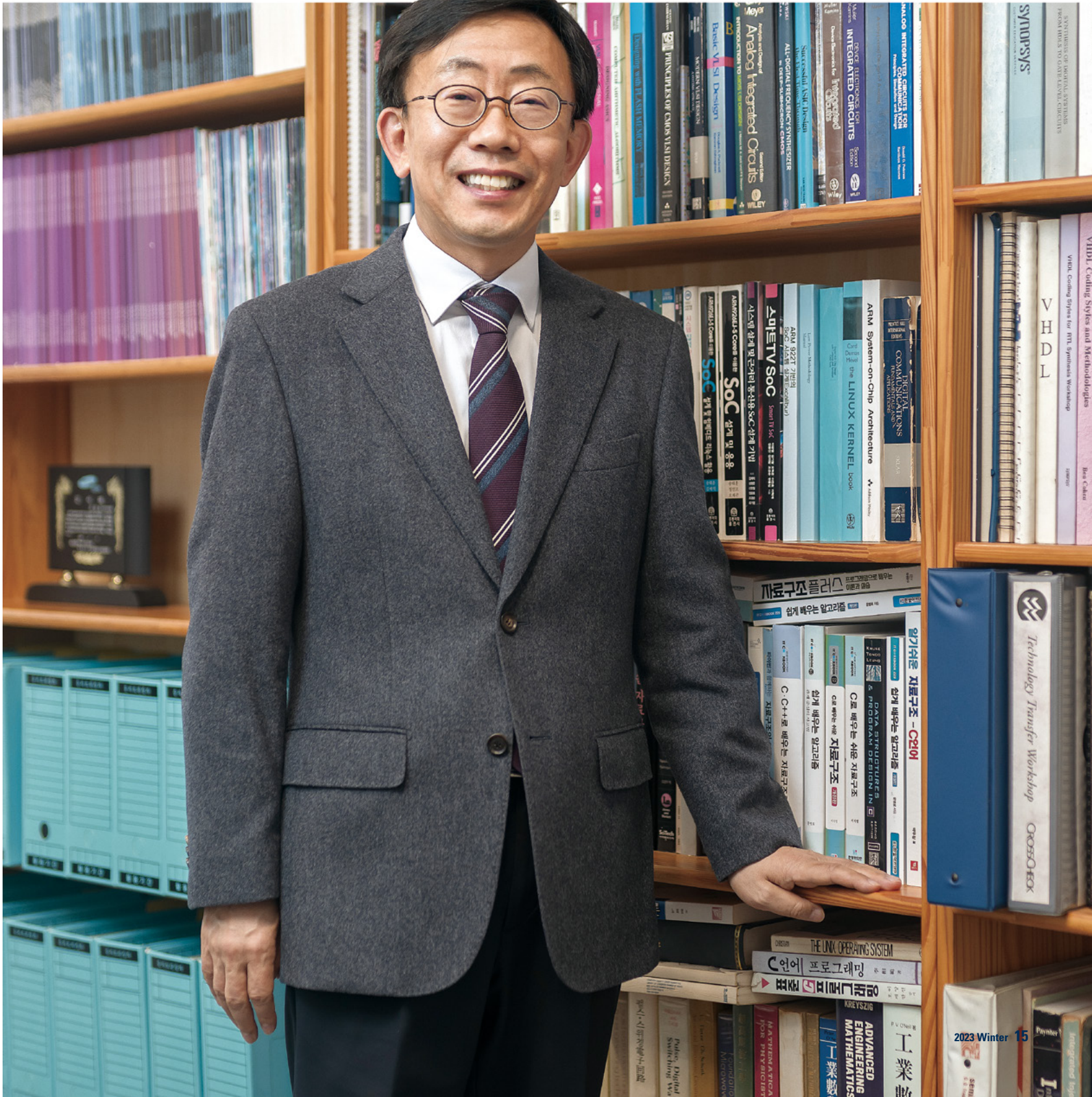
- **앞으로의 연구 및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우선, 2025년 2월 정년퇴임 전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전자공학과의 내년부터 반도체전자공학부로 개편될 예정이고, 준비위원장을 맡은 만큼 학과 신설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학원생들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 관련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주변인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구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조경순 전자공학과 교수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6회 ‘반도체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조경순 교수가 주목한 분야와 교육자로서 노력해온 시간에 대해 들려주었다.



한국외대 경제학회 쿠세아(KUSEA)의 '아기돼지 사형제' 팀은 지역예선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팀을 대상으로 한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 주목받았다. 아기돼지 사형제 팀원 네 명이 이번 대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함께 경험하고 성장한 시간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수상
쿠세아(KUSEA) ‘아기돼지 사형제’ 팀

팀장 김민서 노어 18

김지은 융합일본지역 20

박세은 경제 18

현의찬 경제 20

●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
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김지은 전국결선대회에서 장려상에 호명됐을 때 오히려 약간 아쉬웠습니
다. 서울 지역에서 1등을 하며 자신감이 붙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결
과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약간 아쉬움이 남기에 자만하거나 성급
히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전국결선대회 주제인 ‘8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김민서 대회 참여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쌓여있고, 고금리가 겹쳐 연체를 상승 문제가 심화됐
으며, 비은행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았고,
외환 시장 또한 미국과 큰 금리차 등 위험 요인이 존재했죠. 7, 8월 기준금
리 결정 당시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다소 진정됐으나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짙어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 **이번 대회를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민서 예심 자료를 제출한 날이 기억에 납니다. 마감 전날 예비군 훈련
이 있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구석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에 제일 몰두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할 공모전 경험이 없었던
우리 팀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김지은 서울 지역 B그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최우수상 발표
에서 팀이 호명되는 순간 그동안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울
컥했습니다. 매일 3시간 정도 취침하면서 6개월가량 집중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 실력이 급상승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세은 한국은행에 예선과 결선에 가서 조사국, 경제통계국, 부총재보님
등 한국은행 현직자들에게 발표를 보여드리고 Q&A 하는 경험이 새로웠
고, 각 대학 대표 팀들의 발표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전국 결선 시상
식 이후 이창용 총재님께 사인을 받고 담소를 나눴던 것도 신기했습니다.
현의찬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동아리방에서 회의하던 순간이 기억에 납습
니다. 첫 공모전 경험이었는데 팀원들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 **쿠세아(KUSEA) 지도교수인 경제학부 손종칠 교수, 통계청 통계개발원
장인 경제학부 송준혁 교수의 지도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세은 손종칠 교수님께서는 5월 예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계속 피드

백을 받았습니다. 7월 지역 예선 과정에서는 발표와 Q&A가 메인이라 계
속해서 대면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검색할 논문 사이트, 한국은
행에서 봐야 할 자료, 저희가 쓰는 지표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셨죠. 전국
결선 때도 Q&A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올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송준혁 교수님께서는 5월에 제출하는 예심 보고서 피드백 요청
을 드렸습니다. 이후 지역 예선 발표를 듣고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한은
이 금리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하며, 미국 경제를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등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 **대회 최종 수상으로 한국은행 본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실(이하 금통
위원실)을 견학하며 현장을 체험했는데, 어땠습니까?**

현의찬 금통위원실을 실제로 들어갈 수 있어 좋았고,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
습니다. 공부하면서 봤던 금통위원님 명패가 자리에 있는 것도 신기했고, 제
일 좋아했던 조운제 금통위원님 성대모사를 하면서 팀원들과 웃었던 기억
이 납니다. 금통위원실 견학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들을 보상받는 느낌이라 뿌듯했답니다.

●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해 들려주세요.**

김민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책임지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다변화하고 인공지능(AI), 탄소 중
립 등이 부각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을 분석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지은 은행에서 기업 금융 전문가로 일하고 싶습니다. 통화 정책 경시대
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경기와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중
소, 중견기업의 비전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 보면서 향후 기업 금융 전
문가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회를 하면서 ‘어떤 은행
원이 되고 싶은지’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박세은 많은 이에게 경제, 금융 교육을 하는 것과 커리어에서 전문가가 되
는 것입니다.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고 자율성이 인정되는 증권업
계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경제, 금융 교육을 하고 싶은 이유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 지식이며, 복잡하고 어렵지만 알면 너무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공 수업과 학회, 외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운 인사
이트, 앞으로 배우게 될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현의찬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진 못했지만,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
니다. 취직 후에도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고 여유 시간에는 좋아하
는 운동을 하며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LG유플러스와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학 캠퍼스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외국어와 글로벌 인프라로 무장한 HUFS 메타버스 캠퍼스에 대해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자세히 들려주었다.

외국어와 글로벌 인프라로 무장한 HUFS 메타버스 캠퍼스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메타버스는 재학생의 일 경험 확대할 좋은 기회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LG유플러스에서 대학 캠퍼스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5월 메타버스 캠퍼스 도입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후 유버스 공용 캠퍼스의 대강당, 강의실, 홍보관, 도서관, 상담실 등의 기능에 대해 학교 자체 수요(Needs)와 효과성을 검토했고, ‘HUFS글로벌직무박람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관 등 취업 지원 분야에 도입한 후 필요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10월 6일 LG유플러스와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학 캠퍼스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인 유버스를 구축·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대학과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업과 미래

신사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민정 처장은 재학생의 ‘일 경험’ 요구를 반영하고 기업체 인사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학생에게 적절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인재개발처의 주요 과제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털어놓는다. 학생·인재개발처가 2021년 교육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개정 이후 양질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HD한국조선해양, 키움증권, 와이즈넷 등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학내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정착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7배 이상 증가한 340여 명의 학생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연간 10여 명의 우리 대학 재학생에게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한 메타버스 관련 현장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LG유플러스 미래 신사업 등 사업 각 부서의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재학생의 일 경험을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 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

HUFS 메타버스 플랫폼은 한국외대의 강점인 외국어와 글로벌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은 전 세계 101개국 579개 대학, 67개 기관 등 총 64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교류하며, 외국인 학생 수 또한 97개국 약 2,500명 규모로 국내 대학 중 가장 다양한 국가의 학생이 수학한다. 이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상 공간을 바탕으로 관련 대학 및 학생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외국인 학생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우리 대학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재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해당 해외 현지 대학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우리 대학 학생이 외국인 학생과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고대합니다. 국내 대학의 메타버스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에 우리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외대인이 함께하는 열린 소통 공간 되길

HUFS 메타버스 캠퍼스의 강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라는 것이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학내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구성원과 동문에게 상시 정보 전달 체계로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본다.

“HUFS 메타버스 캠퍼스는 캠퍼스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수업 및 학사 관련 업무, 국제 교류 분야 등 캠퍼스 모든 분야에서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상에 동일하게 구현해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과 동문의 캠퍼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17만 동문이 직접 학교에 와서 캠퍼스를 거닐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메타버스 캠퍼스는 재학생과 전 세계 동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제4의 캠퍼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 캠퍼스와 동일한 건물과 이미지를 구현해 졸업한 동문에게는 변화하는 캠퍼스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재학생에게는 현실감 있는 체험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캠퍼스는 모든 외대인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과 동문이 HUFS 메타버스 캠퍼스의 발전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많이 활용하길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 구현

우리 대학이 10월 27일(금) 개최한 ‘HUFS글로벌직무박람회’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행사장에 재학생 약 1,500명이 참여했고, 10월 30일(월) ‘HUFS 특강(박병철 회장, 엄홍길 대장 토크콘서트)’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강의장에 재학생 약 100명이 참여했다. ‘HUFS글로벌직무박람회’ 사전행사로 진행한 MBC 김대호 아나운서 초청 메타버스 토크콘서트에도 재학생과 지역 청년 약 200명이 참여했다. 김민정 처장은 이런 행사와 특강을 기점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개선됐을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지속적으로 구현하려 합니다. ‘HUFS글로벌직무박람회’에 참여했던 동문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직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문선배멘토링’ 행사를 매년 5월 1일(노동절)에 정례화해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해 재학생의 직무 역량 강화와 선후배간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업 지원 컨설턴트의 1:1 상담도 해 온라인 상담 채널 다각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수업 및 학사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입시 등 각종 설명회, 홍보관 운영, 대규모 특강 개최, 도서관 이용 및 기타 학교 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메타버스 캠퍼스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과 프로그램 사용 편의성이 증대되길 기대한다.



정혜림 ELLT 20

UC Berkeley에서의 배움, 그리고 인생

정혜림 학생은 한국외대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7+1 프로그램을 통해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수학했다.

그는 UC Berkeley에서 교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사람들의 배려와 여유가 인상 깊은 캘리포니아

2022년 가을 학기, 2023년 봄 학기 우리 학교의 7+1 프로그램을 통해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수학했다. 기존 7+1 프로그램은 한 학기를 수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학교 생활에 한번 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한 학기 프로그램을 두 번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녀왔다.

캘리포니아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과 비슷한 곳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고,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받으며, 사람들 모두 신기할 정도로 인사성이 밝고 예의가 몸에 배어 있다. 처음 갔을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모르는 사이라도 이웃끼리 인사하는 것이 기본인 점이 놀라

웠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기사에게 'Thank you'라고 인사하며, 휠체어에 탄 장애인도 탑승하면 기사가 직접 내려서 도와주고, 승객 모두 불평 불만 없이 기다렸다. 뭐든지 빠르게 해야 하는 서울에서만 살다 여유 있는 환경에 놓이니 남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미국은 자유로운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았다.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것이 매우 큰 잘못인 것을 알고 말을 아끼는 습관이 생겼다.

캘리포니아 날씨는 가히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버클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북부 쪽이라 'NorCal(North California)'라 부른다.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이고처럼 365일 찡찡한 날씨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다. 어쩌다가 캘리포니아 지역 사람들이 느긋한 성격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하늘이 아름다웠고, 습한 기운이 없어서 밖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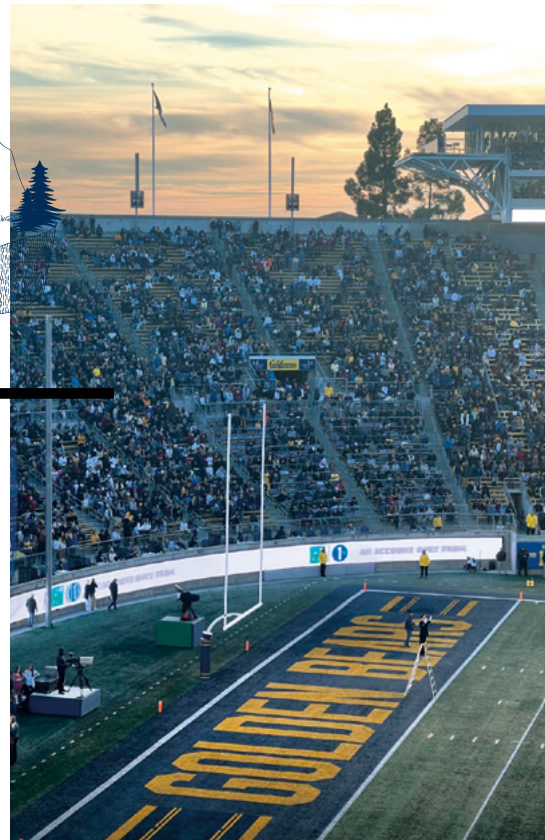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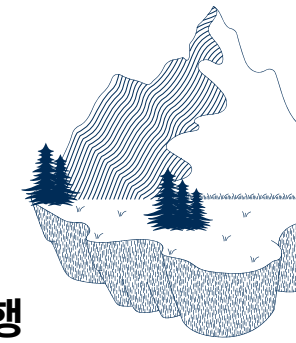
7+1 Program at UC Berkeley



UC Berkeley에서 경험한 진정한 배움

UC Berkeley는 미국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교인 만큼 수업 난이도가 최상이었다. 과학, 공학,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평판이 높고 교수진 또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느라 힘들었다. 매주 읽어가야 하는 논문의 난이도가 높고 분량이 많았으며,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각해야 하는 수업이 많아 발표하기 전에 많이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점차 영어를 듣는 귀가 열리고 자신감이 생기니 이런 수업이 진정한 배움인 것 같아 더 열심히 하게 됐다.

UC Berkeley에서 수학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정치학 수업에 매주 실제 캘리포니아에서 재임 중인 국회의원이나 CNN 기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영향력 있는 이들이 와서 강연한 것이다. 미국은 정치에 대해 진보와 보수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 많은데, 어떤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어 신기했다. 또한 모든 정치인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갖고 있어 멋있었다.



추억이 된 현지 친구들과의 여행

학교 생활도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도시와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다.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과 달리 자취를 했기 때문에 행사에 나갔을 때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다. 미국인은 스몰토크가 기본 문화인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힘들고 문화가 달라서 이야기 주제를 찾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었고 다같이 어울릴 기회가 많았다. 친구들과 요세미티공원, 와인으로 유명한 나파밸리, 예술의 성지인 샌프란시스코 등 유명 관광지를 함께 여행한 것도 추억으로 남았다.

한국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뒤폴이'라고 해서 학생들 전체가 함께 모인다면 미국은 남학생 사교 클럽인 'Fraternity', 여학생 사교 클럽인 'Sorority'와 같이 학생 단체가 파티를 열어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친목을 도모한다. 이런 파티에서 친구를 사귀고 미국 게임을 배우기도 했다. 다들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스스럼없이 대해줘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7+1 프로그램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고, 교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 많이 배우고 온 것 같다.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풍경과 날씨는 삶의 활력소였고, 그곳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도 만났으며, 스스로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한국외대 학생 홍보대사가 'HUFs HANA'로 새롭게 단장했다.

기존 학교 홍보대사 '새로미'와 온라인 홍보대사 'HUFsSon'을 통합해 HUFs HANA로 만든 것이다.

HUFs HANA 진리팀, 평화팀, 창조팀 팀장인 이채민·주세연·김유빈 학생에게 HUFs HANA 활동과 의미에 대해 들었다.

I am HUFs HANA

새롭게 단장한 HUFs 학생 홍보대사

HUFs HANA

이채민 진리팀 팀장, 영미문학·문화 22

주세연 평화팀 팀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 21

김유빈 창조팀 팀장, 영미문학·문화 22

학생 홍보대사 리브랜딩으로 HUFs HANA 탄생

한국외대 학생 홍보대사는 홍보실 소속 조직으로 학교를 대표해 학교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9년 시작된 새로미 1기는 교내에서 제작되는 홍보물 및 홈페이지에 필요한 홍보 이미지 사진 촬영, 캠퍼스투어 진행, 학교 행사 의전 활동을 담당했다. 이후 온라인 홍보가 중요해지면서 2012년에는 온라인 홍보대사 HUFsSon이 새로 생겼다. HUFsSon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우리 대학 공식 SNS 채널 신설 및 관리를 맡았다.

“우리 대학은 2020년대 들어와 학생 홍보대사 역할에 대한 고민을 거쳐 학생 홍보대사 리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새로미와 HUFsSon을 하나로 통합한 HUFs HANA를 만들었죠. 2023년 학생 홍보대사 공식 명칭에 대한 공모전 진행과 홍보, HUFs HANA 1기 선발 등 한국외대 학생 홍보대사의 새로운 단장으로 학교 홍보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HUFs HANA는 진리팀과 평화팀, 창조팀으로 구성된다. 진리팀은 행사 취재 및 사진, 카드 뉴스, 릴스, 인스타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 국내외 주요 인사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교내 각종 행사의 취재를 담당해 학교 소식을 교내외 구성원에게 전달한다. 또한 우리 대학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 채널(@hufs.official)도 운영한다.

평화팀은 교내 행사 활동 지원 및 캠퍼스투어를 진행하며, 교내 주요 소식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홍보한다. 수시 면접 및 논술고사시 응원 퍼포먼스를 통해 수험생에게 우리 대학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제공한다. 우리 대학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ufs_hana) 운영도 평화팀이 맡는다.

창조팀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우리 대학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다.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내용부터 수시 면접 시뮬레이션 영상, 본교생의 브이로그(V-Log) 및 우리 대학만 제작할 수 있는 언어 및 지역학적 관점의 영상 등 다양한 내용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현재 우리 대학 공식 SNS인 유튜브 채널(@HUFs1954)을 운영한다.

힘든 점도 있지만
보람 있는 순간 많아

HUFS HANA는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보람 있거나 힘든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했다. 이채민 진리팀 팀장은 팀원들이 처음으로 콘텐츠를 올렸을 때 가장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HUFS HANA 이전에 HUFSon으로 활동할 때 제 첫 콘텐츠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실수도 했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아 뿌듯함보단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팀원들은 첫 콘텐츠에 대한 기억이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들 성공적으로 스타트를 끊은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초반에 콘텐츠나 근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숙지돼 있지 않은 바람에 생긴 작은 실수 등에 마음을 졸일 때 힘들었습니다.”

주세연 평화팀 팀장은 첫 캠퍼스투어를 진행할 때가 가장 힘들지만 보람 있었다고 했다.

“일정상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캠퍼스투어를 진행하게 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HUFS HANA로서 맡게 된 첫 임무를 멋지게 완수하고 싶어 더 자주 모여 연습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실제 캠퍼스투어를 진행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캠퍼스투어가 끝나고 ‘나중에 외대에 꼭 오고 싶다’고 말해주 뿌듯했습니다.”

김유빈 창조팀 팀장은 다양한 주제의 영상 소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놓았다.

“영상 제작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시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성의 중요함을 모두 알고 있기에 같은 시기에 올리는 영상일지라도 좀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 소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영상, 더 새로운 영상의 소재를 찾기 위해 창조팀은 노력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예비 외대인이 저희 채널을 찾아오는데,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 ‘외대에 꼭 가고 싶다’ ‘24학번 아기부영이가 되고 싶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런 댓글이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학 생활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경험

학교 홍보대사인 HUFS HANA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건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다. 이채민 팀장은 HUFS HANA 활동이 대학 생활의 심지인 것 같다고 표현했다.

“대학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홍보대사를 했고 이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HUFS HANA 활동은 제 대학 생활의 심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 성장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진리팀 팀장으로서 이끄는 위치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주세연 팀장은 HUFS HANA가 대학 생활의 ‘박카스’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새내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3년간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항상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생활했습니다. 늘 한국외대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대학 생활을 더 의미 있고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김유빈 학생은 HUFS HANA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다고 했다.

“‘한국외대’ ‘HUFS HANA’를 검색하면 저희가 만든 영상이 뜨는데 아직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창조팀이 우리 대학의 공식 유튜브를 관리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지닌 사람들과 팀을 꾸려 서로의 콘텐츠를 통해 배워나가며 동고동락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따뜻한 콘텐츠로
학우들 찾아갈 것

HUFS HANA는 학생 홍보대사로 2024년 8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에게 앞으로 각 팀의 활동 계획을 들었다. 주세연 팀장은 곧 다가올 눈술고사 날에 수험생 응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먼저, 눈술고사 날에 HUFS HANA가 총출동해 수험생 응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화팀은 겨울방학 ‘캠퍼스투어 WEEK’를 준비하며 예비 외대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활동 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수험생과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채민 팀장은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리팀은 카드 뉴스 말고도 유튜브 영상이나 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에 도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팀원 모두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제작 실력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어떤 콘텐츠든 기대해도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외대를 홍보하고 재학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김유빈 팀장은 추운 연말을 맞아 따뜻한 영상으로 학우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에는 9월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HUFS HANA의 콘텐츠 관련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외대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를 활용해 구독자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 아이디어를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평화 HUFS HANA 평화팀



따뜻한 시선으로
HUFS HANA 지켜봐주길

마지막으로 이들은 HUFS HANA 활동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이채민 팀장은 학우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HUFS HANA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팀원 모두 엄청난 열정과 노력, 시간을 쏟아부어 만듭니다. 학우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위해 구글 폼 등을 이용해 사연이나 의견을 받는데, 그럴 때 많이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김유빈 팀장 역시 학우들과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HUFS HANA는 학교 채널이라는 특성상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출연해줄 학우들을 섭외해야 합니다. 외대 내 여러 단체의 활동을 체험하는 시리즈 콘텐츠 등 학교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하고요. 학우들을 영상 기획자가 직접 섭외하는데, 아무래도 유튜브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쉽다 보니 학우들이 출연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우들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콘텐츠가 많으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주세연 팀장은 HUFS HANA의 활동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콘텐츠를 완성했을 때 학우들이 ‘좋아요’나 ‘댓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면 정말 뿌듯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학우들을 마주할 때 같은 학생으로서 반갑게 맞아주고 협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어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할 HUFS HANA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면 좋겠습니다.”

가자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김수완
융합인재학부
중동이슬람전략 모듈 교수

가자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선은 우려와 불안

지난 10월 7일 육해공의 전방위적 공격과 상상을 뛰어넘는 치밀한 전술로 천장 없는 갭 옥이라 불리던 가자지구의 콘크리트 벽과 철조망을 부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을 만큼 전격적이었다. 하마스 공격 초반 이스라엘 사망자 1,200명과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 20,000명이 넘는 가자지구 사망자가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이하 가자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선은 우려와 불안 그리고 분열로 점철되어 있다.

22,145km²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자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불과 365km²다. 길이 41km, 폭 10km되는 좁은 지역의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히 발버둥치고 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가자지구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이스라엘군의 가차없는 폭격과 공습으로 그나마 빼곡히 모여 있던 낡은 건물들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파괴되어 있다.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학교, 병원 심지어 난민촌까지 가리지 않는다. 지하 40m 깊이에 약 500km까지 늘어선 '가자메트로'라 불리는 지하 터널망에 숨어 있는 하마스 대원을 색출하여 사살하려는 이스라엘군의 분노에 찬 공격은 최근 땅굴에 대한 바닷물 침수 작전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부상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걸까? 잊혀지는 듯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고, 세계는 다시 중동과 팔레스타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오스만제국과 독일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당시 유럽 유대계의 큰 손인 로스차일드 경에게 전쟁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유대인 국가 건설 지원을 약속한다. 이른바 '벨푸어선언'이다. 비슷한 시기 영국은 '후세인-맥마흔' 협정으로 아랍인들에게 전쟁 후 아랍독립국을 약속하는 한편,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통해 전후 중동 지역을 나누어 각각 식민 통치하자는 비밀 협약을 프랑스와 체결한다. 영국은 같은 땅을 두고 세 개의 서로 다른 모순된 약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수는 2022년 기준 590만 명을 넘어섰다.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UN)과 국제 사회의 증가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통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없다'는 메시지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적인 휴전 요구 결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자지구 민간인의 고통과 외침 간과해서는 안 돼

가자지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하마스의 완전 궤멸은 요원해 보인다. 제2, 제3의 하마스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궤멸시킨다 해도 하마스 이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한 문제가 화두로 대두된다.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통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에 의해 엄격히 봉쇄되어 통치되어온 지난 16년 동안 이스라엘과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려온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서안지구를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리더십의 무능과 부패는 하마스보다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아랍국들의 가자 주민 수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다. 가자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막상 가자 주민을 수용할 만큼 포용적이지는 않다.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 카타르 총리, 이스라엘 정보 기관 모사드 국장의 회동과 이집트에서 진행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와 이집트 국가정보국 국장과의 회동은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실낱 같은 희망을 안겨 준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서안지구 주민들과 이스라엘 방위군의 잦은 충돌과 사망자의 발생은 또 다른 상황의 악화를 암시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순간에도 폭격에 속절없이 희생되고 있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과 외침을 국제 사회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없는 중동의 평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H

U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HUFS Institutes](#)

[HUFS Books](#)

F

S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국내 대학 순위 2위

우리 대학이 11월 6일(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23년 4분기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국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사립대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소재 사립대 13곳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대학은 80점을 기록해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 2위에 올랐다. 학생들의 교육 인프라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대학은 대면 강의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 엔데믹 환경에 발맞춰 재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연구·행정 등 학교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교수학습개발원에 있는 '무용실'을 미네르바 콤플렉스 지하 캠퍼스로 옮겨 'HUFS팝(HUFS-Pop)'으로 재단장한 점, 글로벌캠퍼스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판교역과 서현역 일대에 정착하는 학생 통학 버스 거점 노선을 신설 운영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李白 장학금 수여식 및 백창호 강의실 헌정식 개최

10월 27일(금) 우리 대학 인문과학관 305호 강의실에서 제1회李白 장학금 수여식 및 백창호 강의실 헌정식이 열렸다.李白 장학회 백창호 이사장(영어 72)과 이주예 이사(프랑스어 74)가 우리 대학의 인재 양성과 발전을 위해 올해 신설된李白 장학금 장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및 글로벌 양캠퍼스 재학생 4명이 제1회李白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박정운 총장은 “백창호 이사장의 후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면서 “장학생들도 백창호 이사장과 이주예 이사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배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창호 이사장은 “십여 년 전 이덕선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만드신 이덕선 장학금 수여식 행사 참여를 기점으로 선배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생각으로李白 장학회를 만들었고, 첫 번째 장학생들을 만나게 돼 무척 기쁘다”면서 “이 자리를 만들어준 평생의 반려자 이주예 이사와 함께 인연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선배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및 발전기금 전달

우리 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학과장 오종진, 이하 터키어과)는 11월 10일(금) 서울캠퍼스 도서관 5층 헬라아쿠쉬네트홀에서 '2023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창립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Sezai Tolga Şimşir 부대사,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관 Emin Teymurov 부대사, Sercan Doğan 튀르키예 공보참사관, Büsra Karatepe 아제르바이잔 문화참사관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터키어과 총동문회 발전기금 전달식과 장학금 수여식, 다채로운 행사의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터키어과 총동문회 천부기 총동문회장(91)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모금한 8,800만원의 발전기금을 학과에 전달하면서, 약 140여 명에 달하는 동문들이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모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튀르키예 학과 동문회에서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멀리서 학과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온정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태국 수교 65주년 기념 학술문화제 개최 및 발전기금 기탁

우리 대학 태국어과(학과장 신근혜)와 태국어통번역학과(학과장 이병도)는 한국과 태국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주한 태국대사관(대사 윗주 웨차치와) 후원으로 '한-태 수교 65주년 기념 학술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1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서울캠퍼스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및 대학원 브릭스관 등지에서 국제 학술대회, 태국문화예술제, 전국대학생태국어경시대회 등이 열렸다. '65 Years of Dynamic Mutual Benefits and Coexistence Between Korea, Thailand, and the World: A New Horizon for Academic Research'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태국과 주변 지역, 그리고 거시적 국제 관계의 역동성을 조명하기 위해 1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가 학술적 견해를 나눴다. 한편, 이날 태국어과 동문(81학번)인 엄상용 대상에스티(주) 대표이사가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엄상용 동문(태국어 81) 보경 장학금, 천만석 동문(태국어 90) OPS 장학금, 윤한성 동문(태국어 90) 장학금, 배진희 동문(태국어 01) 디지털 인재 장학금 등 학과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



故 김진우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추서식

9월 8일(금)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故 김진우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추서식이 개최됐다.故 김진우 교수는 2007년 본교 부임 후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민사법학회 학술이사, 우리 대학 법학연구소장,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이 추서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가족과 공진성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신지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최승필 법학연구소장, 윤성우 교무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년퇴직 교원 정부포상 및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식

9월 8일(금)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정년퇴직 교원 정부포상 및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2023년 8월 31일부 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임명된 교원은 소병국 교수, 송정남 교수, 문명재 교수, 남궁영 교수, 최영 교수, 김유경 교수, 정환승 교수, 조기성 교수, 강준우 교수, 김성복 교수, 이정 교수다. 조기성 교수는 녹조근정훈장을, 송정남, 문명재, 최영 교수는 근정포장을, 김유경, 강준우, 김성복 교수는 대통령 표창을, 남궁영, 정환승, 이정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외대연극회, 제52회 신입생 워크숍 개최, 존 카리야니 '사랑의 여덟가지 온도-Almost Maine' 공연

우리 대학 외대연극회(지도교수 김봉철)는 9월 14일(목)~16일(토) 매일 저녁 7시 서울캠퍼스 브릭스문화관에서 '사랑의 여덟가지 온도-Almost Maine' 작품을 공연했다. 외대연극회 제52회 신입생 워크숍 일환으로 준비된 것으로, 프롤로그에서부터 여덟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여러 모습을 담았다. 총연출한 전연주(EICC 21) 학생은 "사랑은 우정, 증오,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도 있다"며 "사랑의 의미를 찾아 공연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루마니아 전 대통령, 한국외대 방문

우리 대학은 9월 19일(화)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루마니아 전 대통령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레반트 문화 문명 고등연구소(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Levant Culture and Civilization) 대표단을 맞이해 양기관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운 총장을 예방한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루마니아 전 대통령은 레반트 문화 문명 고등연구소의 역할과 그간의 활동을 설명하고, 루마니아어과뿐만 아니라 전 세계 45개 언어를 교육하는 우리 대학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체코 하원의원 대표단, 한국외대 방문

우리 대학은 9월 20일(수) 안 스코페츠크 하원 부의장을 수장으로 한 체코 하원의원 대표단을 맞이해 우리 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 현황을 소개하고, 한-체코 양국간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운 총장을 예방한 안 스코페츠크 하원 부의장은 세계 여러 정상이 방문한 우리 대학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체코간 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전문가를 배출하는 우리 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다.



스페인어과,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공동 '콜롬비아 문화주간' 개최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학과장 송예림)는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과 협력해 서울캠퍼스 도서관(관장 조희문)의 공공문화 외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4일(월)~8일(금) '콜롬비아 문화주간'을 개최했다. 문화주간 주제는 '삶의 실로 잇는 평화(Tejiendo paz con los hilos de la vida)'로, 콜롬비아 전통 공예가이자 Tejidos Chakana의 창립자 겸 대표인 마테오 페레아 베르날을 초청해 콜롬비아 전통 직조 공예품으로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즈직조 공예 티셔츠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교육혁신원, 제2기 동대문구 어학 멘토링 키다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개최

우리 대학 교육혁신원(원장 김현정)은 9월 26일(화)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동대문구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어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제2기 동대문구 어학 키다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2024년 2월까지 활동하는 제2기 키다리 서포터즈는 언어 능력 및 봉사성, 성실성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26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서포터즈로서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동대문진로취업체험지원센터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국제학부, 2023학년도 2학기 김봉철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는 9월 27일(수) 2023학년도 2학기 김봉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김봉철 장학생으로 선발된 금민섭(17학번)과 임병준(19학번)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는 장학증서를 수여하면서 "미래에 한국외대와 국제학부를 빛낼 소중한 자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래 국제학부장은 "장학금 수여가 학부 전체에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학과 학부생팀, 2023 유한킴벌리 그린캠프 입상

우리 대학 환경학과 학부생팀(유가혜, 김시훈, 김지민, 우명성, 이동주 학생) '외환'이 2023 유한킴벌리 그린캠프 '도시숲 부문-서울그린트러스트 단체상'을 수상했다. 우리 대학 '외환' 팀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도심 녹지인 서울숲에 대해 시민 참여의 의미와 공익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기후 위기 대응 프로젝트 '서울숲+'를 기획했다. 이들은 실제 서울숲에 적용 가능하다는 실현 가능성과 서울숲의 기반인 시민 참여의 의미를 더욱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세르비아 전통의상 기증식

우리 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학과장 김상현)에 10월 5일(목) 주한 세르비아대사관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 환경 분야 세계은행인 국제기구 'Green Climate Fund' 한국지사의 드라고루브 켈레체비치 조달관리 책임자 등 대표단이 방문해 세르비아 전통의상(남녀 의상 각 6벌)을 기증했다.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와 드라고루브 켈레체비치 책임자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세르비아 전통의상을 입고 세르비아 문화를 널리 알려주길 당부했다.



아랍어과, 진로 취업 멘토링 선배와의 만남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10월 5일(목) 대학원 1층 브릭스문화관에서 진로 취업 멘토링 '아랍어과 선배와의 만남'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아랍어과 동문 선배들이 재학생 후배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랍어과 졸업생 멘토 7명은 K-뷰티 해외 무역, 국제기구, 해외 영업, 방위 산업, 대학원, 언론사, 웹툰 분야 등 사회 각 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두 명은 카이로와 두바이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한국외대, 2023 가을 대동제 'QUINQUATRIA'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9월 19일(화)~21일(목) 3일간 서울캠퍼스 전역에서 가을 축제인 'QUINQUATRIA(이하 퀸쿠아트리아)'를 개최했다. 퀸쿠아트리아는 고대 로마의 미네르바 여신을 기리는 축제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 대학만의 고유한 축제다. 특히 이번 축제는 '퀸쿠아트리아'라는 축제 브랜딩 효과를 제고하고, 챗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느끼는 또 다른 형태의 대학 사회와 경험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신선함을 선사했다. 또한 적재, LOCO, 윤하 등 아티스트의 공연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외대, 주한 폴란드대사관 공동

폴란드 비드고시치 민속예술단 초청 공연 개최

우리 대학 폴란드어과(학과장 최성운)는 10월 11일(수) 글로벌캠퍼스 국제세미나실에서 주한 폴란드대사관 및 쿠아비-포모제(Kujawsko-pomorskie)주와 공동으로 폴란드 비드고시치 민속예술단을 초청해 '아름다운 우리 폴란드'라는 주제로 폴란드의 민속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드고시치 민속예술단은 폴란드 전통 의상을 세 차례나 갈아입을 정도로 다채롭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쳐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사범대학, 우수 현장교사 특강 시리즈 진행

우리 대학 사범대학은 학생들을 위해 2023학년도 총 5회에 걸쳐 현장교사 특강을 진행했다. 현장교사 특강의 강사진은 오랜 시간을 교육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를 통해 깨달은 소중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는데, 생동감 있는 사례 소개와 강연으로 예년보다 더 알찬 특강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GBT학부, '2023 GBT Hackathon Challenge 대회' 개최

우리 대학 GBT학부(학부장 전종근)는 10월 13일(금)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 경진대회 플랫폼 데이콘(DACON)과 공동으로 '2023 GBT Hackathon Challenge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최우수상(한국외대 총장상)의 영예는 팀 '디그다'에게 돌아갔다. 정찬혁(컴퓨터공학 19), 이호영(컴퓨터공학 19), 이주은(GBT 21), 백형준(융합인재 21), 박동규(컴퓨터공학 19) 학생으로 구성된 팀 '디그다'는 안전한 사면 공사를 위해 AI 기반 지면 환경 분석 및 증강 현실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제공에 대한 기획을 제시했다.



한국외대, 주한 폴란드대사관 공동

제13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

우리 대학 폴란드어과(학과장 최성운)는 11월 9일(목)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주한 폴란드대사관(대사 Piotr Ostaszewski)과 공동으로 제13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연은 '우리는 형제! 한국인과 폴란드인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펼쳐졌으며, 저학년 리그 1등은 2학년 오가운 학생, 고학년 리그 1등은 4학년 성은총 학생에게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폴란드 교육부가 제공하는 6개월 어학연수 장학금 및 서머스쿨 장학금, 폴란드 현지 공공기관 인턴십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영어교육과 선배 초청 간담회 시리즈 진행

우리 대학 영어교육과는 2023학년도 총 3회에 걸쳐 선배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3월 20일(월) 80학번 박흥률 동문(미주 한국일보 국장)을 초청해 'My way, My life'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6월 1일(목)에는 04학번 공병규 동문(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교수)을 초청해 '인공지능과 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11월 13일(월)에는 78학번 이성하 동문(외대 명예교수/태국 마히돌대학교 연구석좌교수)이 '나, 우리 그리고 세계'의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국외대,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공동

'Tomorrow Solution for Ukraine' 학술제 개최

우리 대학 우크라이나어과(학과장 홍석우)는 11월 21일(화) 글로벌캠퍼스 어문관 등지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 솔루션(Майбутні рішення для України)'을 주제로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1년 넘게 진행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큰 상처와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기획의 장이었다. 발표에 참여한 우크라이나어과 재학생 40여 명은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학술제의 대미는 우크라이나어과 1기 졸업생 동문 취업 특강이 장식했다.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총장단, 한국외대 방문

우리 대학은 10월 27일(금)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VNU-HCM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USSH) 응오 티 푸응 란 총장과 대표단을 맞이해 우리 대학 베트남어과와 동 대학 한국학부를 통한 양교간 교류 협력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교육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은 베트남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로, 우리 대학과 1991년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외대, 청년창업 장려 프로젝트 '청년빌더 오디션' 데모데이... 최종 수상작 발표

우리 대학은 11월 2일(목) 서울캠퍼스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청년빌더 오디션' 데모데이에 총 4개 팀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 창업팀 및 창업 동아리, 시드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9월 4일(월)~11월 2일(목) 진행했다. 이날 데모데이에서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팀인 '마인드리더즈(한해원, 이소영, 최정훈)', '스카이로그(함상훈, 황보람)', '리빗이태훈, 최연재, 신슬기, 양희민)', '팀파운더스(이정욱, 구해진)' 4개 팀이 선정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2023 HUFS 특강-동문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10월 31일(화)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국제통상 67),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중국어언문화 02)를 초청해 '2023 HUFS 특강-동문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현장 강연과 유튜브 스트리밍 및 메타버스 플랫폼(UVERSE)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병철 회장과 엄홍길 대장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어 도전한 경험담을 들려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자신을 이겨낼 것을 강조해 재학생 후배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외대, 韓 최초 메디치상 수상 한강 작가 초청 북토크 '빛을 품고 가기' 진행

우리 대학 외대학보(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는 11월 20일(월) 서울캠퍼스 대학원 BRICs 국제포럼장에서 한강 작가(이하 한 작가)를 초청해 북토크 '빛을 품고 가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대학보 기자단과 사전 참가 신청을 접수한 우리 대학 재학생 8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작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2021년 출간돼 올해 메디치외국문학상을 수상한 한 작가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2023학년도 2학기 동원그룹리더십강학재단 장학생 간담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우리 대학 학생·인재개발처(처장 김민정)는 11월 21일(화) 서울캠퍼스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재단법인 동원그룹리더십강학재단 장학생 간담회와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동원그룹리더십강학재단은 2007년 동원그룹에서 10억원을 기탁해 학교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학생들이 섬김과 봉사 정신, 성취욕이 투철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 2학기에는 동원장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외대, 2024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실시

우리 대학 입학처(처장 정석오)는 11월 25일(토)~26일(일) 2024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수시 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486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에 1만8,547명이 지원해 38.1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35.00:1)보다 경쟁률이 상승했다. 우리 대학은 원활한 고사 진행과 캠퍼스 내 수험생 밀집도 완화 등 수험생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를 동안 총 네 타임으로 나눠 고사를 진행했다. 사전 신고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교내에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국제지역대학원

인도-태평양 연구팀, 호주 시드니대학교, 퀸즐랜드대학교 공동 학술행사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원장 홍완석) 인도-태평양 연구팀(연구책임자 온대원, 이하 연구팀)은 10월 25일(수)~27일(금)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시드니 대학교(The University of Sydney) 및 브리즈번에 소재한 퀸즐랜드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와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호주의 저명한 국제 문제 학술지 <호주국제문제저널> 특별호 발간을 위해 우리 대학 연구팀을 중심으로 호주, 유럽, 미국 등의 연구자로 구성된 집필진의 논문 발표와 토론, 평가가 진행됐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등 공동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 이하 사업단)은 10월 27일(금)~28일(토) 양일간 부경대학교 장보고관 리더십홀에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글로벌교육연구학회,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와 '지정학의 귀환, 통일, 그리고 교육'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7일(금) 1일차 오전에는 사업단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와의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어 열린 공동 학술회의 제1, 2세션, 28일(토) 2일차 오전 제3세션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환경연구원·전남대학교 ICT수산자원관리연구소 공동 국제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 이하 사업단)은 11월 1일(수)~3일(금) 여수 히든베이호텔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한국환경연구원(KEI) 북한환경정보센터, 전남대학교 ICT수산자원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접경과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2023'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대만,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20여 명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녹색 성장과 남북한 협력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태국 탐마삿대학교 경영대학 초청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국제경영학과 파이낸스경영전공(주임교수 김용식)은 11월 2일(목) 태국의 국립 종합대학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경영대학 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KB국민은행 여의도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김철기, 장재철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인공지능(AI) 및 한국경제 관련 특강이 이어지며 한국과 태국의 경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동남아연구소

10월 정기 독회 개최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10월 31일(화)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10월 정기 독회를 개최했다. 이번 독회는 우리 대학 박재명 연구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베트남 법제 변천의 특징과 현황-전통(15세기) 국조형률부터 현대까지 외국 법률의 수용과 융합·고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재명 교수는 이날 독회를 통해 베트남 법제의 특징과 베트남 법제에 반영된 외국법의 영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했고, 유교 문화권의 영향 아래 있는 베트남 법에 반영된 여성 권의 양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러시아연구소

이석배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초청 강연회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10월 11일(수) 서울캠퍼스 국제관 113호에서 이석배(전)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석배 전 대사는 '러시아, 한국, 그리고 세계: 안팎의 시선'이라는 큰 주제 아래 '제국 러시아의 이해'라는 세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30년 넘게 외교관으로서 현장에서 러시아를 지켜본 이석배 전 대사는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본인의 경험과 연결해 설명했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나라 국익에 중요한 국가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3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사업... 모스크바 국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10월 16일(월)~19일(목) 모스크바 현지에서 2023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대 아태연구센터,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과 공동 국제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16일(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 정세와 한러 관계'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18일(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19일(목)에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아시아 연구소(ICA)에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미디어외교센터

월간 동북아 이슈 리포트 5호 발표

우리 대학 미디어외교센터(센터장 채영길)는 11월 1일(수) 월간 동북아 이슈 리포트 5호(10월호)를 발표했다. 월간 동북아 이슈 리포트는 지난 한 달간 미국, 중국, 일본 주요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를 취합 및 분석해 언론 보도의 주요 주제와 숨겨진 의미구조 등을 밝혀냄으로써, 주요 3개국 언론을 통한 한국 담론 형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된 결과 보고서다. 동 기간 미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는 크게 두 가지로, 한국-중국 무역 관계와 한국-북한 안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트3국연구사업단

1차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발트3국연구사업단(연구책임자 홍완석 국제지역대학원장)은 9월 15일(금)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EU연구소 발트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와 경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로 구성된 발트 3국의 최근 현황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며 발트연구센터를 개설한 김봉철 EU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본격적인 발트 3국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2023 하반기 국내 학술회 개최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센터장 서중석)는 11월 3일(금) 서울캠퍼스 도서관 휠라아쿠슈네트홀에서 '디지털 세미오시스와 21세기 문화'라는 주제로 2023년 하반기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18회 인문주간 행사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언어, 사회,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언어학, 윤리학, 번역학, 기호학의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세미오시스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경향에 대한 소개와 논의가 이뤄졌다.



언어연구소

'2023 세계한국어 한마당 국제 학술대회' 참가

우리 대학 언어연구소(소장 서중석)는 10월 6일(금) 국립국어원 주최 '2023 세계한국어 한마당 국제 학술대회' 분과에 선정돼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세상을 담은 한국어 미래로 가는 한글문화'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2023 세계한국어 한마당 국제 학술대회'에 언어연구소는 '우리말과 외래어표기'라는 주제로 분과 참여를 했다. 외래어 표기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아직 외래어 표기가 제정되지 않은 국가의 언어(인도어, 튀르키예어, 페르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스탄어)들의 표기 방향에 대한 제안들이 이뤄졌다.



역사문화연구소

제180회 콜로퀴엄 개최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영)는 9월 8일(금)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제180회 정기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퀴엄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고가영 박사를 초청해 '조국을 배신한 자의 아내에서 소련 국민되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관련 전공 연구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고가영 박사는 이번 콜로퀴엄을 통해 '조국을 배신한 자의 아내에서 소련 국민되기' 위해 여성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국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을 대했는지 등을 통해 많은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다.



영어대학

‘2023 영어대 학술제(College of English Students Academic Conference)’ 개최

우리 대학 영어대학(학장 조성은)은 11월 15일(수)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2023 영어대 학술제(College of English Students Academic Conference, 주최: 영어대학, 주관: 영미문학·문화학과)를 개최했다. 올해 학술제에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경험한 가운데 총 6개 팀이 참가해 인공지능 시대와 교육, 진위성에 관한 연구 ‘Determining Authenticity in the Era of ChatGPT’라는 논문과 발표를 선보인 셸록(Sherlock)팀(지도교수: Max Watson)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도연구소 HK+ 사업단

2023년 하반기 인도 비즈니스 포럼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사업단은 9월 22일(금) 주한인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23년 하반기 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라지브 쿠마르 연구교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인도 반도체 협력 모색’을 주제로,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의 지형 변화와 함께 국제적인 경제 재편의 상황에서 한국의 공급망 확장 및 생산 협력 국 다변화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인도 비즈니스계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는 장이 되었다.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사업단은 10월 26일(목)~27일(금) 양일간 인도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네루대 Centre for East Asian Studi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Great Transition in India-Korea Relations: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riendship’이라는 주제로 한국, 인도,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6개국 30여 명의 인도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국과 인도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연구소

‘제18회 청년학자국제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중국연구소(소장 나민구)는 10월 21일(토)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공자학원과 공동으로 ‘제18회 청년학자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학 연구의 변화와 지속(中国学研究的变迁与延续)’이란 주제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25개 대학교에서 온 70여 명의 학자가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오후로 나눠 총 14개 조에서 언어, 문자, 문학, 어법, 문화, 교학 등 분야를 주제로 총 70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몽중월 프로젝트,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실�크로드 연구센터 연합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중국연구소(소장 나민구) 몽중월프로젝트 팀(연구책임자 김현주)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10월 28일(토)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 및 우리 대학 실�크로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중형으로 보는 동아시아 문명교류’라는 주제로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 국가의 문학, 복식, 도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1부에서는 몽중월 프로젝트 팀의 ‘문명의 남북교류’에 대한 4개의 발표가, 2부에서는 ‘문명의 동서교류’에 대한 4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제주특별자치도와 학술 교류 양해 각서 체결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9월 22일(금)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단장 강민철)과 생태법인 개념의 제도와 그리고 국제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기관은 향후 학술·연구, 교육,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문에서 공동 협력을 통해 양기관의 공동 목표인 생태 자 연환경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17차 국제생태경제학회 국제 학술대회 공동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10월 26일(목)~28일(토) 콜롬비아 산타 마르타의 막달레나 대학(Universidad del Magdalena)에서 개최된 제17차 국제생태경제학회 국제 학술대회(The 1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cological Economics; ISEE 2023)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UN 하모니워드네이처, 국제생태경제학회, 로스안데스(Los Andes) 대학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한 본 국제 학술대회는 세계적 행사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행사 1일 차인 26일(목) 스페셜 트랙(ST02)에서 사업 어젠다인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 생태문명 연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동연구소

UAE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 기관 Trends Research & Advisory와 업무 협양 양해 각서 체결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유달승)는 10월 12일(목)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아랍에미리트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 기관인 Trends Research & Advisory(트렌즈 리서치 앤 어드바이서리)와 업무 협약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 이후 양기관은 실질적 수행 가능한 공동 연구 및 학술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동연구소 소속 연구원과 트렌즈 리서치 앤 어드바이서리의 실무진이 참석했다.



인문사회연구사업단, ‘중동시장 진출전략 기업설명회’ 개최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유달승)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은 10월 26일(목) 흥덕유타워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라운지에서 용인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과 공동으로 ‘2023년 중동시장 진출전략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전략 마련과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 이날 설명회는 유달승 중동연구소장과 권현석 용인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의 개회사, 정영화 KOTRA 중동국부펀드연구소장, 이창섭 삼성전자 자문, 김형훈 한국이슬람중앙회 할랄위원회 사리아 위원, 이경수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EU연구소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교류 협정 체결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10월 25일(수)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소장 안숙영, 이하 ‘여성학연구소’)와 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양연구소는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양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 연구 간행물 및 학술 정보 교환, 공동 학술대회 및 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최, 연구 지원 사업 공동 참여와 운영 등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 협의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발트연구센터 개소식 & 발트 3국 사진전 개막식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11월 13일(월) 외국어연수평가원 414호에서 발트연구센터(Baltic Research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발트연구센터는 우리 대학 EU연구소와 연계해 유럽의 발트 3국 지역의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발트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러시아와 유럽 지역 전문 연구자들과 협력해 ‘정체성의 정치: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 연구(연구책임자 홍완식)’를 주제로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공동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EU연구소는 발트연구센터와 해당 주한 대사관들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 전북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공동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 인문사회연구사업단(연구책임자 김면희)은 10월 13일(금),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전북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과 ‘전환시대의 평화와 통합: 유럽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1패널은 ‘유럽의 새로운 도전과 한국적 함의’라는 소주제로 본 사업단의 연구책임자인 김면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어진 제2패널에서는 ‘유럽의 전환경쟁정책과 한국’이라는 소주제로 학문 후속세대가 참여해 학술적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유럽의 새로운 도전 및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HUFS Professors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금보험공사 객원연구위원 선임**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행정법, 환경법, 금융경제법)가 9월 14일(목) 예금보험공사 객원연구위원으로 선임됐다. 최승필 교수는 객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안정 및 예금보험 제도에 대한 법리를 연구하게 된다. 최승필 교수는 경제 및 금융행정법의 전문가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한국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 위원 및 금융법령해석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자문위원회 감독총괄분과 위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조경순 전자공학과 교수,
제16회 반도체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 수상**

우리 대학 전자공학과 조경순 교수가 10월 26일(목) 더케이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 16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2008년부터 반도체의 날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조경순 교수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개발 및 산업적 측면, 인력 양성 및 교육적 측면, 정책 사업단 및 학술 활동을 통한 관产学研 R&D 기반 구축 측면의 공헌을 인정받아 2023년도 반도체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성승은 융합인재학부 교수,
한국번역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 융합인재학부 영어통번역세부모듈 성승은 교수가 10월 14일(토) 서울캠캠퍼스 BRICs 문화관에서 열린 2023년 한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제13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성승은 교수의 연구는 세계 최대 OTT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중역을 통한 다국어 번역에 대한 연구로,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임현경, 한유진 학생과 함께 진행했다. 성승은 교수가 수상한 우수 논문상은 전년도 <번역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훌륭한 연구 업적에 주어지는 상으로, <번역학연구>는 2022년 기준 KCI IF(5년) 전체 인문학 저널 330개 중 9위다.

소니 카르소노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교수, 2023년 인도네시아 올해의 문학상 수상

우리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소니 카르소노 교수는 10월 25일(수) 신간 「Sentimentalisme Calon Mayat(Sentimental Overtures to Death)」으로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선정한 2023년 올해의 문학상(Penghargaan Sastra) 단편소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문학상'은 인도네시아 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시, 장편소설, 단편소설, 수필, 희곡 등 다섯 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이뤄진다. 소니 카르소노 교수는 인도네시아 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문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Asian Studies Review> <Indonesia and Malay World>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등 국제 저명 저널에 문학과 역사를 아우른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소니 카르소노 교수는 지난 10월 초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권위 있는 문학상인 수타소마상(Sutasoma Award)도 수상한 바 있다.



**임대근 융합인재학부 교수,
제1회 K-콘텐츠학술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취임**

우리 대학 융합인재학부 임대근 교수는 11월 3일(금)~12월 2일(토) 아트센터 나비(타작마당) 등지에서 열리는 제1회 K-콘텐츠학술문화축제(K-Culture & Contents Academic Festival: K-CAF) 조직위원장을 맡아 축제를 주관했다. K-CAF는 K-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학술 행사와 문화 행사를 위한 플랫폼 이벤트이다. 제1회 K-CAF에서는 우리 대학 코레아노폰 연구센터(센터장 조영한)와 대만연구센터(센터장 임대근),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주임교수 임대근)를 비롯해 18개 기관 및 단체의 K-콘텐츠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한데 묶어 학술-인문-문화-교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임대근 교수는 "K-콘텐츠에 관한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촉진하고, 상호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학술-인문-문화-교양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다리'를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UFS Professors



**장은수 독일어과 교수,
제36회 대한민국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우리 대학 독일어과 장은수 교수가 10월 26일(목)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현, 이하 한국예총) 주최 '2023 대한민국예술축전'에서 제36회 대한민국예술문화공로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예술축전은 2018년부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종합예술대회로, 이 축전은 우리 문화 예술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한 예술전문가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다. 장은수 교수는 이번 제36회 대한민국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에서 연극 분야를 대표해 수상했다.



**이재목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3회 민주주의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이재목 교수는 11월 24일(금) 서울 용산구 민주주의학술연구원(원장 이충묵)에서 개최되는 제3회 민주주의학술상 시상식에서 민주주의학술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학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15년 창립 이래 민주주의 학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수상하기 위해 '민주주의학술상'을 운영해왔다. 제3회 민주주의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재목 교수는 최근 한국 정치의 당파적, 정서적 양극화 문제를 사회 정체성 이론을 통해 조명했으며, 정치 양극화 심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꾸준한 학문적 연구 성과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재목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이재목 교수는 11월 17일(금)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3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제24대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부터 1년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학제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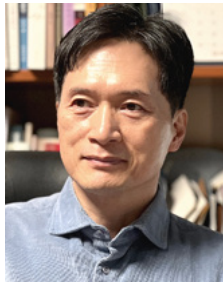
최우익 러시아연구소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극지연구소 프로젝트 수주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 최우익 교수(극지연구소 센터장)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극지연구소로부터 '한국형 북극 정보지도 인터페이스 구축 및 활용(3년차)' 프로젝트를 지난 10월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권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 및 이로 인한 경제, 사회 여건 변화 전반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북극권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2022) 내 '산학연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 확대' 일환으로, '한국형 북극 정보지도 구축하여 북극권 지역별 인구·산업·경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사업과 연계된 것이다. 최우익 교수는 2022년에도 해당 사업의 2년차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최재영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한국중국언어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최재영 교수는 11월 17일(금)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3년 한국중국언어학회 제2회 해외석학초청강연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년이다. 최재영 교수는 중국어 역사문법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근대 중국어 연구방법론1」, 「역주 박통사언해」 등 역서 및 저서를 출간했으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중국언어학 연구와 발전을 위해 1987년 창립된 한국중국언어학회는 국내외 중국언어학 관련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학회로, 학회지 <중국언어연구>를 연 6회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전국 대학원생을 위한 '중국언어학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연수평가원

2024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4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주간정규과정	2월, 8월	2024. 02. 05. ~ 06. 21. (20주, 월~금)
	방학특별과정	7월, 12월	2024. 06. 24. ~ 07. 19. (4주, 월~금)
아간과정	아간회화과정	3월, 8월	2024. 03. 05. ~ 05. 23. (12주, 화, 목)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2월, 8월	2024. 02. 24. ~ 06. 15. (16주, 토)
외시과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과정	3월, 9월	2024. 03. 06. ~ 06. 26. (16주, 수)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600시간에 걸쳐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회화에 집중하는 아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 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 특별과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57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이메일 fl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해 위탁 기관의 특성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정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서울시청, 씨티은행, 법원행정처, 예금보호공사 등 많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위탁반아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높은 만족도 평가로 위탁 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마다 지속해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이메일 fl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스페인 정부기관인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연 3차례(5월, 7월,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하여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 학과정(A1~C2), DELE 시험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평일과 주말에 모든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이메일 aulacervantes@hufs.ac.kr

서울평생교육원

2024년 상반기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교육일정
통번역과정	통번역기초과정	3월, 9월	2024. 03. 09. ~ 06. 15.(15주, 토)
교양과정	부동산 투자 전략과정	5월, 10월	추후 확정
	부동산 경매 입찰과정		
	웹소설 작가 양성과정		

통번역기초과정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과정으로, 2014년 개설돼 현재 19기(영어)를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정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이메일 edulife@hufs.ac.kr

실용 교양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성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실용 교양과정을 신설했으며, 2023년에는 부동산, 웹소설, 상담심리 등 분야를 다양화해 2기 과정을 성공리에 운영했다. 부동산 재테크과정은 「반지하에서 반포아파트 입성하기」 저자인 이재국 교수의 '부동산 투자 전략과정'과 오기열 교수의 '부동산 실전경매 입찰대비반'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다. 웹소설 작가 양성과정은 웹툰, 웹소설 전문 제작사인 드림픽 처스21과 공동 운영 과정으로 현직 인기 웹소설 작가들의 팀티칭으로 작가 데뷔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평생교육원 교양과정은 연 2회, 5월과 10월 운영 정례화를 목표로 사회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양질의 과정을 개발 및 운영 확대해갈 계획이다.

문의 02-2173-2515, 2557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이메일 edulife@hufs.ac.kr

FLEX센터

2024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15. ~ 02. 21.	03. 17.	04. 05.	04. 19.
2회	04. 25. ~ 05. 01.	05. 26.	06. 14.	06. 28.
3회	08. 08. ~ 08. 14.	09. 08.	09. 27.	10. 04.
4회	10. 03. ~ 10. 09.	11. 03.	11. 22.	12. 06.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우리 대학이 수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 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 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

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험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3학년도 후기(42기) 영어세미나(Practicum)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12월 23일(토)부터 1월 3일(수)까지 총 2주간 학기의 마지막 과정인 영어세미나를 진행한다. 영어세미나는 지난 한 학기 동안 TESOL연구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론들을 직접 교수님들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시연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 과정이다.

2024학년도 전기(43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24년 3월 2일(토)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24학년도 전기 과정생 일반전형 모집을 진행했다. 10월 30일(월)부터 일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11월 12일(일)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전형이 진행됐다. 면접 전형은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로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과한 20여 명이 내년 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24학년도 전기(43기) 특별전형은 2024년 1월 8일(월)부터 15일(월)까지 일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2023학년도 후기(42기) 채용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11월 28일(화) 2023학년도 후기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외대어학원과 정상 JLS어학원이 참여해 학원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내력, 업무 내용, 처우 등을 소개하며 업체마다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 기관은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에게는 넓은 취업의 길, 업체에는 인재 획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채용설명회는 분기마다 개최된다.

한국어문화교육원

가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 모

든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이번 가을학기에는 문화 체험 행사로 서울캠퍼스 오버마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교육원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6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타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홈페이지** <http://www.korean.ac.kr>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LG에너지솔루션 영어 어학집중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어학집중과정을 10월 4일(수)부터 11월 3일(금)까지 운영했다. 중국, 폴란드, 미국 등 여러 글로벌 지사와 공장을 둔 고객사의 주재원 파견대상자 및 글로벌 인재풀 31인을 선발하여 이뤄진 4주간의 합숙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은 매일 8시간씩의 집중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본 교육원은 고객사 설문 결과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 5점 만점에 4.96점, 동료에게 교육 과정 추천 여부 5점 만점에 4.86점을 기록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

경찰청 특수외국어 역량강화 합숙교육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11월 6일(월)부터 11월 17일(금)까지 2주간 경찰청 특수외국어 역량강화 합숙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현직 경찰공무원인 30명의 교육생들은 2주간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특수외국어에 대한 어학, 수사 관련 어휘, 이문화 등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을 학습했다. 짧은 기간의 합숙임에도 교육생들은 높은 열의를 보였으며, 교수진과도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국제사회교육원은 향후 경찰청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 지역전문가 제2차 보수 교육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11월 20일(월)부터 '2020년 삼성 지역전문가 제2차 보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전문가제도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삼성 지역전문가' 연수생으로 선발된 직원들은 파견 대상 국가에 1~2년간 머물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된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지난 2020년 프로그램의 보수 과정으로 삼성그룹 임직원 33명(독일어(2), 베트남어(12), 인도네시아어(1), 포르투갈어(6), 폴란드어(6),

힌디어(6))이 입소해 지역 적응과 함께 업무 관련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수생들은 오는 12월 15일(금) 교육 수료 후, 세계 각지에 파견될 예정이다. 한편, 12월 18일(월)부터는 2024년 지역전문가 파견 예정 인원 80여 명이 입소해 관련 교육을 수강한다.

하나은행 글로벌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10월 28일(토)부터 '하나은행 글로벌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본 과정은 매주 토요일 그룹 수업 및 주중 1:1 과제 피드백 수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중국어 4명, 포르투갈어 2명의 수강생이 webex를 통한 전면 비대면 과정으로 참여했다. 한편 국제사회교육원은 하나은행과 작년부터 은행 소속 임직원들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영재교육원 2024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영재교육원은 2024학년도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전형을 진행했다. 2024학년도 모집 과정은 영어 초등 4/영어 초등 5·6/영어 중등 1·2/수학 초등 5·6 4개 과정으로 각 과정 15명, 총 60명을 선발한다. 이번 전형에 약 450명이 지원해 약 7.9: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6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60명은 2024년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월 격주 토요일에 정규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영재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의 031-330-4910 **홈페이지** <https://gifted.hufs.ac.kr>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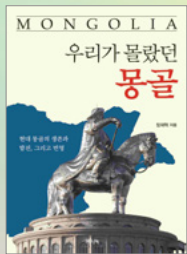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벱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벱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우리가 몰랐던 몽골—현대 몽골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번영

이 책은 현대 몽골의 모습을 상세히, 그리고 흥미롭게 선보이고 있다. 책의 세 가지 테마는 몽골의 생존과 발전, 번영이다. 생존의 방법을 알기 위해 몽골의 외교를,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몽골의 경제를, 번영의 꿈을 그리기 위해 몽골의 문화를 살펴본다. 이는 몽골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연결된 주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도판과 지도, 표 등 실증적인 자료로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데 힘썼다. 또한 정치·외교·경제·문화를 아우르는 내용을 통해 다각적으로 몽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재혁 / 256면 / 크라운판 / 18,000원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5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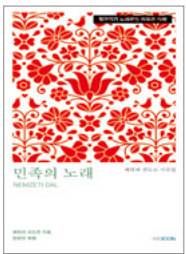
이 책은 번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개론서로, 번역학 연구의 주요 흐름을 한데 모아 명료하게 요약·정리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번역학 연구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필수적인 배경 지식과 연구 방법을 공부하며, 번역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에 착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문 번역가와 번역 전공생이 자신의 실무 경험에 큰 틀 속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분석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번역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자 하는 이에게 딱 맞는 번역학 지침서다.

제레미 먼데이 외 / 남원준, 이형진 옮김 / 478면 / 크라운판 / 28,000원

스웨덴어 쓰기

「스웨덴어 쓰기」는 스웨덴어 기본 문법 실력과 어휘를 어느 정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작문 교재다. 특히 스웨덴어 작문 강의를 들었던 학습자의 실제 글을 바탕으로 구성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내용의 문장을 활용해 스웨덴어 글쓰기에 도움이 되게 했다. 본문은 스웨덴어 학습자의 올바른 실용적인 스웨덴어 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문장 쓰기, 글쓰기, 실용 글쓰기 부분으로 나눠 3부로 구성했다. 쓰기 연습 후 문법 지식을 복습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게 고쳐쓰기 연습을 추가했다.

박현숙 / 228면 / 46배판 / 19,000원



민족의 노래—페퇴피 산도르 시선집

「민족의 노래—페퇴피 산도르 시선집」은 헝가리 사람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페퇴피 산도르의 시를 엮은 책이다. 2023년 페퇴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출판됐으며, 그의 시 120여 편을 엮어 선보인다. 시 대부분은 사랑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으며, 그런 지극한 사랑조차 자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페퇴피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 한국 독자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헝가리에서 사랑받는 대표 시인인 페퇴피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자의 상세한 해설을 수록했다.

페퇴피 산도르 / 한경민 옮김 / 224면 / 문고판 / 16,000원



노벨문학상과 번역 이야기

노벨문학상 수상작은 어떻게 번역되고, 편집되고, 알려질까. 「노벨문학상과 번역 이야기」는 노벨문학상을 맞이하는 문화부 기자, 출판편집자, 번역가의 경험담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제1부에서는 기자와 편집자가 노벨문학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았다. 제2부에서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각 작가의 책을 직접 번역한 번역가의 이야기를 담았다. 해마다 노벨문학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독서 애호가에게 이 책은 흥미진진하면서도 깊이 있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정은귀 외 / 202면 / 신국변형판 / 17,000원



+ 언어를
배우다
문화를
만나다 +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23.12.1(금)~24.1.15(월) 2차 24.1.30(화)~24.2.15(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다문화·심리상담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대 동문·교직원(가족)과 함께 합니다.

(입학 시 동문장학금, 외대복지장학금 지급)



H _ U

DONATION
& ALUMNI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 _ S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NATION
I

송용덕 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지난 10월 6일(금) 송용덕(영어 73) 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며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개최된 이날 기탁식 행사에는 송용덕 동문 내외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박정은 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오종진 대외협력처장, 윤성우 교무처장,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 박경은 홍보실장이 참석했다.

송용덕 동문은 대학 졸업 후 1979년 호텔롯데가 개점한 해에 입사해 롯데그룹에서 커리어를 시작, 1989년 호텔롯데 뉴욕사무소장, 2006년 호텔롯데(잠실) 총지배인, 2011년 롯데호텔의 러시아 법인인 롯데루스 대표이사, 2012년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2017년 롯데그룹 부회장과 이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40여 년 한 우물을 판 호텔전문가다. 러시아 모스크바 호텔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고, 뉴욕, 괌, 베트남 등에 롯데호텔을 개장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이뤄냈다. 호텔 전문가이자 기업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대학 미네르바 교양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DONATION
II

김수규 재 상해(화동) 동문회 이사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10월 13일(금) 김수규(영어 67) 재 상해(화동) 동문회 이사회장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박정은 총장을 예방하고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김수규 이사회장은 “지난 7월 해외동문연합회 총회와 9월 재 상해(화동) 동문회 간담회에서 박정은 총장을 만나 모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 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하며 “이번을 계기로 동문회 내 다른 후배들의 기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은 총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 모교를 방문한 김수규 이사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재 상해(화동) 동문회에서 보여주는 모교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영(영어 81) 前 회장과 박형준 現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박정은 총장, 김태성 서울캠퍼스 부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장봉익 미래위원회 위원장, 오종진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DONATION
I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학교 발전기금 등 2억원 약정

지난 10월 26일(목) 우리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학교 발전기금 및 복지환경 개선기금으로 2억원을 약정했다. 이번 기금 약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나오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생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감사함을 표하고자, 학교 발전기금 및 복지환경 개선기금으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내달 중 기탁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 생협은 1990년 글로벌캠퍼스에 학생생협을 설립한 후 1994년 9월 교수, 직원, 학생 3자 생협으로 재창립한 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2008년 12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30여 년간 대학본부와의 약정에 따라 글로벌캠퍼스 직영매장 사업, 임대매장 사업, 장학 사업과 기타 조합원 복지 사업 및 구성원의 학내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협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23억원 이상을 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등으로 기부하는 등 대학과 상생의 관계에 있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5기 HK Produce Group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9월 4일(월) 우리 대학 대학본부 203호 이덕선 회의실에서 제5기 HK Produce Group(대표 김중호)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김중호 대표(독일어 89)는 2010년 HK Produce Group을 설립한 이후 현재 뉴욕, 메릴랜드, LA 등지에 지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이끌고 있으며, 2019년부터 HK Produce Group 장학금을 만들어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매 학기 6명에게 지급되는 HK Produce Group 장학금은 2023년 현재 누적 1억원을 넘어섰다. 미국 현지의 바쁜 일정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 참석을 위해 모교를 방문한 김중호 대표는 “각 시대마다 어려움은 늘 존재해 왔으며 그럴 때마다 극복의 정신으로 이겨낸 만큼, 현재 MZ 세대들도 학업 및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란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한국외대-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
글로벌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 회장 Brian Lee)와 9월 6일(수)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203호 이덕선 회의실에서 글로벌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980년대 초 시작된 KAIFPA는 보험과 재정 전문인이 모인 비영리 한인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기업인의 권익을 증진해왔다. 지난 7월 우리 대학 박정은 총장의 미주 지역 주요 동문회 방문 일정 중 성사된 KAIFPA 제27대 회장 Brian Lee와의 만남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해외 인턴십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이어진 KAIFPA 장학금 수여식에서 우리 대학 보험계리학과 전공하는 양캠퍼스 학생들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박정운 총장, 중국 상해(화동) 동문회 간담회 참석

박정운 총장은 9월 14일(목) 김태성 서울캠퍼스 부총장과 함께 중국 상해(화동) 동문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상해(화동) 동문회 이사회장 김수규(영어 67) 동문과 동문회장 김용해(중국어 92) 동문 및 13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운 총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공유하고 동문회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해(화동) 동문회 김수규 이사회장은 소중한 기부자의 뜻을 내비치며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회에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모교와 동문회 사이의 연결과 상호 협력을 다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상해(화동) 동문회는 상해, 장쑤성, 저장성까지 아우르는 해외(중국) 주요 동문회로 동문간 왕성한 교류와 화합을 통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어대학 동문회, 장학금 기탁 및 수여식 개최

지난 9월 22일(금) 우리 대학 대학본부 203호 이덕선 회의실에서 영어대학 동문회(회장 주영림(영어 79)) 장학금 기탁 및 수여식이 개최됐다. 영어대학 동문회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선배들의 마음을 담은 장학금 총액은 4,100만원으로, 이번 2학기에 총 10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주영림 회장은 “모교를 방문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다”고 밝히며 “졸업생에게 있어 학교 사랑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장학금 기탁인 만큼 동문회에서도 계속해서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발된 장학생들과 영어대학 동문회 주영림 회장과 박정아 사무총장, 박정운 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오종진 대외협력처장, 조성은 영어대학장,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참석했다.



제14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10월 6일(금) 우리 대학 대학본부 203호 이덕선 회의실에서 제14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이하 이덕선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오종진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덕선 해외동문 연합회 이사장과 캐서린 여사가 우리 대학의 인재 양성과 발전을 위해 조성한 이덕선 장학금 장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제1기 장학생을 시작으로 올해 제14기 장학생까지 총 97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이어 열린 만찬 행사에는 이덕선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운 총장, 김태성 부총장(서울),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장봉익 미래위원회 위원장,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 오세홍 학생·인재개발처장(글로벌)을 비롯해 김인철 前 총장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축하했다.



제15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 수여식 개최

제15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 수여식이 9월 25일(월)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은 등록금 지원이라는 장학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학업 성적은 물론 다양한 교내외 활동 참여도를 반영해 장학생을 선발, 총 4명(서울캠퍼스 2명, 글로벌캠퍼스 2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여식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구성원들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은 우리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학업 생활과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매 학기 양캠퍼스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탁액 1억원을 달성했다.



한국외대119 ROTC 31기 임관 30주년 기념 행사 개최

한국외대119 ROTC 31기 동기회(회장 89학번 박상규)는 임관 30주년 기념 행사를 11월 11일(토) 본관 스카이라운지에서 개최했다. 동기 회원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Again 1993, Together 2023'을 주제로 당시 전국 최우수 학군단 선정 등 다양한 추억을 회고하는 영상 상영과 공연 행사를 가졌고, 신임 동기회장 취임식과 함께 119 학군단(단장 김두철) 후배를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주현 동문,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베트남 사무소장 부임

김주현(영어 98) 동문이 지난 7월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베트남 사무소장(Country Representative, Viet Nam)으로 부임했다.

◆김상백 동문, 경동대학교 글로벌상생교육원 단장 임명

김상백(국제경영학(박사) 12) 동문이 지난 9월 1일(토) 경동대학교 글로벌상생교육원 단장에 임명됐다.

◆조기중 동문, 주미대사관 워싱턴 총영사 부임

조기중(프랑스어 89) 동문이 지난 9월 20일(수) 주미대사관 워싱턴 총영사로 부임했다.

◆승재현 동문,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승재현(아랍어 91) 동문이 지난 10월 5일(목) 법무부 새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이현주 동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이현주(경제 81) 동문이 지난 10월 24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김영훈 동문,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선임

김영훈(경영 85) 동문이 지난 10월 27일(금)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용호 동문, LX판토스 대표이사 선임

이용호(독일어 82) 동문이 지난 11월 8일(수) LX판토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지순 동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본부장 임명

이지순(영어 84) 동문이 지난 11월 13일(월)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성현 동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 취임

김성현(영어 84) 동문이 지난 11월 17일(금)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 관장에 임명됐다.

동문 출간



이성수(한국어교육 78)

커피게임
(BOOKK(부크크))



박경식(법학 87)

사표를 날렸다. 글을 적는다.
(페스트북)



심종숙(비교문학(박사) 01)

엘리아 전傳
(우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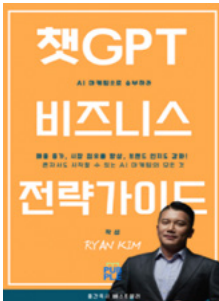
박순조(국제관계학(박사) 04)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북랩)



강민수(폴란드어 10)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요?
(두란노)



김상백(국제경영학(박사) 12)

AI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챗GPT 비즈니스 전략 가이드
(퍼플)

Donation List

Donation & Alumni

2023. 9. 1. ~ 2023. 11. 30.

한국외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가정준	동문	30,000
가덕영	동문	30,000
강동호	동문	5,000,000
강동희	동문	100,000
강영남	동문	30,000
강미리	동문	30,000
강원익	동문	30,000
강자혜	동문	120,000
고경숙	동문	30,000
고재모	동문	300,000
고태수	동문	90,000
고태진	동문	40,000
고혜섭	동문	3,360,500
고혜수	동문	30,000
공병훈	동문	19,615,265
곽명근	동문	30,000
곽새라	동문	10,081,500
곽순재	동문	30,000
곽태석	동문	30,000
구민구	동문	30,000
권경애	동문	90,000
권가수	동문	500,000
권서영	동문	90,000
권성욱	동문	30,000
권순한	동문	30,000
권영아	동문	30,000
권장오	동문	60,000
권준호	동문	90,000
김경민	동문	100,000,000
김경수	동문	30,000
김경희	동문	30,000
김경희	동문	150,000
김광기	동문	30,000
김기민	동문	30,000
김가수	동문	30,000
김남규	동문	30,000
김대식	동문	30,000
김대윤	동문	100,000
김대철	동문	60,000
김대호	동문	30,000
김대희	동문	60,000
김도현	동문	60,000
김도현	동문	500,000
김동선	동문	1,000,008
김미경	동문	120,000
김마수	동문	300,000
김민정	동문	30,000
김민정	동문	187,500
김민정	동문	90,000
김민주	동문	40,000
김범수	동문	30,000
김병진	동문	90,000
김봉철	동문	30,000
김상범	동문	30,000
김상원	동문	1,000,000
김석중	동문	30,000
김선수	동문	90,000
김선주	동문	3,000,000
김성민	동문	30,000
김성호	동문	11,109,824
김세동	동문	30,000
김수규	동문	50,000
김송수	동문	30,000
김승영	동문	30,000
김시홍	동문	30,000
김영일	동문	30,000
김용	동문	30,000
김용빈	동문	30,000
김용정	동문	30,000
김용진	동문	30,000
김우철	동문	30,000
김원영	동문	30,000
김원범	동문	60,000
김유강	동문	20,000
김유정	동문	30,000
김유현	동문	30,000
김은정	동문	30,000
김은정	동문	30,000
김이선	동문	10,000,000
김자경	동문	90,000
김정기	동문	100,000
김정연	동문	30,000
김종범	동문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김종윤	동문	50,000
김우영	동문	30,000
김준국	동문	40,000
김준영	동문	30,000
김자숙	동문	60,000
김자숙	동문	30,000
김자우	동문	300,000
김자홍	동문	60,000
김지은	동문	40,000
김지택	동문	30,000
김지환	동문	90,000
김지훈	동문	60,000
김진아	동문	30,000
김찬완	동문	4,000,000
김창진	동문	40,000
김태성	동문	100,000
김태우	동문	60,000
김한선	동문	30,000
김한구	동문	30,000
김현수	동문	30,000
김환신	동문	12,000,000
김형래	동문	30,000
김혜진	동문	60,000
김효정	동문	30,000
김효진	동문	90,000
김희재	동문	1,000,000
나도연	동문	30,000
나영규	동문	40,000
나인애	동문	60,000
남한술	동문	390,000
노건업	동문	30,000
노동주	동문	30,000
노영환	동문	30,000
노영호	동문	60,000
노일현	동문	30,000
노재영	동문	60,000
노지영	동문	30,000
류동호	동문	30,000
류민정	동문	150,000
류재욱	동문	30,000
류재봉	동문	30,000
문관식	동문	90,000
문종혁	동문	40,000
문지희	동문	50,000
문환성	동문	60,000
문홍윤	동문	200,000
민유식	동문	20,000
박건은	동문	40,000
박남호	동문	4,000,000
박문정	동문	30,000
박미정	동문	50,000
박삼규	동문	30,000
박상준	동문	60,000
박선중	동문	30,000
박삼수	동문	30,000
박성호	동문	150,000
박수원	동문	150,000
박시원	동문	30,000
박영조	동문	30,000
박용운	동문	90,000
박원기	동문	30,000
박원복	동문	60,000
박은주	동문	90,000
박재진	동문	30,000
박재홍	동문	30,000
박정운	동문	90,000
박종성	동문	30,000
박지영	동문	30,000
박찬희	동문	30,000
박치완	동문	30,000
박준택	동문	500,000
박홍수	동문	30,000
반현숙	동문	10,000,000
방교영	동문	100,000
배석주	동문	3,000,000
배은경	동문	75,000
백승연	동문	30,000
백인구	동문	60,000
백인도	동문	60,000
부종환	동문	300,000
상연진	동문	30,000
서경원	동문	50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서기원	동문	30,000
서용균	동문	300,000
서유경	동문	90,000
서관주	동문	1,000,000
손세준	동문	8,000,000
손영훈	동문	30,000
손정희	동문	40,000
손진오	동문	130,768,575
손호섭	동문	20,000
송대현	동문	30,000
송민형	동문	150,000
송연식	동문	30,000
송용덕	동문	1,000,000
송원영	동문	30,000
송준서	동문	30,000
송준엽	동문	30,000
송철중	동문	60,000
송치민	동문	30,000
송현우	동문	30,000
송형근	동문	30,000
신근혜	동문	1,500,000
신만하	동문	30,000
신술	동문	30,000
신아람	동문	30,000
신연재	동문	90,000
신용규	동문	30,000
신윤경	동문	30,000
신용석	동문	300,000
신용철	동문	150,000
신인선	동문	30,000
신정아	동문	40,000
신정현	동문	196,500
신종훈	동문	90,000
신현경	동문	30,000
심재현	동문	100,000
심찬	동문	30,000
안상범	동문	30,000
안우혁	동문	30,000
안인경	동문	60,000
안준상	동문	60,000
안민지	동문	30,000
안병욱	동문	1,000,000
안보혜	동문	30,000
안연우	동문	60,000
안재성	동문	30,000
안환성	동문	30,000
엄상용	동문	30,000
엄용길	동문	30,000
여민기	동문	30,000
염철	동문	90,000
오성석	동문	50,000
오성식	동문	90,000
오정민	동문	150,000
오준화	동문	30,000
오창엽	동문	30,000
윤대환	동문	30,000
윤재만	동문	30,000
원동휘	동문	300,000
유근혁	동문	150,000
유민경	동문	100,000
유승국	동문	30,000
유시영	동문	360,000
유영미	동문	30,000
유은지	동문	30,000
유은찬	동문	150,000
유재형	동문	180,000
유정은	동문	30,000
유준영	동문	30,000
유진규	동문	150,000
윤선수	동문	30,000
윤성우	동문	2,000,000
윤승영	동문	30,000
윤여창	동문	30,000
윤은경	동문	30,000
윤초록	동문	30,000
이동만	동문	10,000
이동원	동문	200,000
이동원	동문	450,000
이동철	동문	30,000
이미현	동문	30,000
이민중	동문	5,030,000
이사우	동문	30,000
이상방	동문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이상식	동문	20,000
이성배	동문	300,000
이성민	동문	30,000
이성조	동문	30,000
이수연	동문	30,000
이승열	동문	300,000
이승영	동문	30,000
이승수	동문	30,000
이승룡	동문	90,000
이승원	동문	30,000
이승재	동문	30,000
이승조	동문	30,000
이연택	동문	150,000
이원희	동문	40,000
이영도	동문	30,000
이영범	동문	30,000
이영우	동문	90,000
이영화	동문	30,000
이예지	동문	30,000
이윤성	동문	90,000
이용권	동문	30,000
이홍술	동문	30,000
이유림	동문	150,000
이진진	동문	30,000
이은구	동문	30,000
이은소	동문	30,000
이인섭	동문	30,000
이장길	동문	30,000
이재선	동문	60,000
이재호	동문	30,000
이재홍	동문	300,000
이영민	동문	60,000
최요성	동문	240,000
이주연	동문	90,000
최진호	동문	450,000
최준혁	동문	90,000
이지연	동문	150,000
이지은	동문	150,000
이지은	동문	450,000
이창훈	동문	60,000
이찬윤	동문	1,338,165
이천효	동문	405,000
이태우	동문	150,000
이택규	동문	150,000
이하나	동문	541,600
이향	동문	30,000
이현경	동문	90,000
이현식	동문	30,000
이혜영	동문	30,000
이호경	동문	30,000
이화랑	동문	90,000
이홍인	동문	180,000
이희라	동문	105,000
이희섭	동문	150,000
이희성	동문	300,000
임근홍	동문	300,000
임대근	동문	60,000
임동무	동문	10,000,000
임소라	동문	3,420,000
임은경	동문	150,000
임은숙	동문	150,000
임재복	동문	300,000
임학민	동문	360,000
임형준	동문	60,000
장봉익	동문	10,000,000
장성환	동문	30,000
장선호	동문	595,074
장윤수	동문	750,000
장은영	동문	30,000
장일범	동문	30,000
장재혁	동문	105,000
장정민	동문	1,000,000
전별	동문	300,000
전성철	동문	90,000
전혁만	동문	1,673,100
정승화	동문	300,000
정화준	동문	1,000,000
정연우	동문	105,000
정용호	동문	450,000
정인욱	동문	60,000
정재민	동문	100,000
정재훈	동문	600,000
정지훈	동문	60,000
정철자	동문	30,000

Donation List

Donation & Alumni

2023. 9. 1. ~ 2023. 11. 30.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정혜연	동문	30,000
정희영	동문	900,000
정화준	동문	60,000
정성훈	동문	90,000
재현수	동문	1,200,000
조규태	동문	6,000,000
조기석	동문	150,000
조종식	동문	150,000
조민기	동문	600,000
조성훈	동문	834,000
조성윤	동문	150,000
조수연	동문	30,000
조용배	동문	300,000
조원희	동문	937,500
조인서	동문	650,000
조정화	동문	300,000
조창수	동문	60,000
조희문	동문	60,000
주다물	동문	60,000
주대여성동문회	동문단체	30,000
차은수	동문	450,000
차현경	동문단체	150,000
채미혜	동문	90,000
채터키 이스탄불 동문회	동문단체	60,000
최근호	동문	300,000
최방진	동문	30,000
최병천	동문	30,000
최봉실	동문	60,000
최수연	동문	1,000,000
(사)국제청소년연합	기타(개인)	1,000,000
(사)아름다운공동체	기타(단체)	500,000
(재)동화산업장학재단	기타(단체)	60,000
(재)삼성공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
(재)월진재단	기타(단체)	30,000
(재)제이씨현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
(재)케이티그림화랑나눔재단	기타(단체)	60,000
(재)협성문화재단	기타(단체)	30,000
노업문화재단	기타(단체)	150,000
추기영	동문	30,000
덕계학술재단	기타(단체)	60,000
태현주	동문	90,000
하상원	동문	30,000
하석근	동문	30,000
하정수	동문	350,000
한나린	동문	300,000
서울중부수방서	기타(단체)	200,000
한익시	동문	150,000
한익성	동문	60,000
한라은	동문	150,000
용운장학회	기타(단체)	30,000

기부 혜택

외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부자 예우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 제공	○	○	○	○	○	○	○
학교 발간 홍보물 제공	○	○	○	○	○	○	○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제공		○	○	○	○	○	○
외국어 연수 평가원 수강료 본인 및 직계가족 30% 할인		○	○	○	○	○	○
감사패 증정			○	○	○	○	○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	○	○	○
대천수련원 이용시 교직원에 준한 예우				○	○	○	○
홀 명칭 동판 부착					○	○	○
홍상 부조 부착							○

●세제혜택

1.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2.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예금주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3.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문의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이메일) hufs5@hufs.ac.kr

QS 세계대학평가 평판도 설문위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社(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는 전 세계 2,000여 개 대학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여 매년 6월 세계대학평가 결과로 1,000여 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는 약 40여 개 대학이 본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과 우수 교원 확보 및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는 대학 평판도, 교육여건, 연구성과, 국제화 지표가 있으며,

이 중 평판도 설문 결과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하여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학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국내·외 대학을, 산업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업무 분야에서

채용을 선호하는 국내·외 대학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2024년 평가에 참여해 주실 설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 위원으로 등록하실 경우,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2024년 1~2월 중에

QS에서 직접 대학 평판도 설문조사 링크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의 설문 참여 하나하나가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설문위원으로 등록하시어 소중한 의견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교육계 인사·교원 등)

◆상시 등록 가능



산업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산업계 인사·직장인 등)

◆문의 : 기획조정처 평가감사팀(02-2173-2027)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HUFS 121